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고등학생의 정치적 관용과 비판적 사고의 관계 분석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and Level of Political Tolera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전공

박 세 나

고등학생의 정치적 관용과 비판적 사고의 관계 분석

지도교수 모 경 환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전공
박 세 나

박세나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6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최근 우리 사회의 현실은 자신과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타인의 자유를 짓밟고 억압하는 행태로 점철되어 있다.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정치적 극단화 현상은 사회 구성원 간의 지속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 마련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러한 정치적 극단화의 원인으로는 정치적 불관용이 존재한다. 정치적 관용은 자신이 반대하는 집단에게까지 의견 표현의 자유와 같은 공적 영역에서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려는 태도를 의미하는데, 정치적 관용의 부재는 정치적 극단화를 촉발하고 가속시킨다. 따라서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회과에서는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관용이라는 자질을 함양하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회과의 현행 정치적 관용 교육은 반대되는 정치 진영 간의 극단적 대립과 억압적 태도를 막는 데 무력하다. 따라서 사회과 연구자들에게는 정치적 관용 교육에 대한 깊은 성찰과 분석을 바탕으로 현행 교육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 시급한 과제로 요청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행 정치적 관용 교육이 특히 불관용을 초래하는 요인들에 대한 대응에 미비했다는 점을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하였다. 그리고 정치적 관용 교육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사회과의 고차사고력 중 하나인 비판적 사고가 불관용을 초래하는 요인에 대한 대응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관용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비판적 사고와 정치적 관용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비판적 사고와 정치적

관용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 주가설 1. 비판적 사고가 높을수록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 수준이 높을 것이다.

- 하위가설 1. 비판적 사고 기능이 높을수록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 수준이 높을 것이다.
- 하위가설 2.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을수록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 수준이 높을 것이다.

■ 주가설 2. 비판적 사고 기능이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은 비판적 사고 성향에 의해 달라질 것이다.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35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비판적 사고의 하위 요인인 비판적 사고 기능과 비판적 사고 성향은 정치적 관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가설 1은 채택되었다. 반면 비판적 사고 기능이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은 비판적 사고 성향에 의해 조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가설 2는 기각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음의 교육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정치적 관용 교육에 있어서는 비판적 사고 기능과 비판적 사고 성향을 함양하는 교육을 통해 불관용을 초래하는 요인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치적 관용 교육에 있어 정치적 권리나 관용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비판적 사고 기능

이나 비판적 사고 성향과 같이 그 자체로는 정치적이지 않은 중립적인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주요어 : 정치적 관용, 관용, 정치교육,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 기능, 비판적 사고 성향
학 번 : 2020-21944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3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5

Ⅱ. 이론적 배경 ····· 7
1. 사회과와 정치적 관용 ····· 7
1) 정치적 관용의 개념 및 특성 ····· 7
2) 사회과의 목표로서 정치적 관용 ····· 12
3) 정치적 관용 교육의 한계와 보완 방안 ····· 14
2. 사회과와 비판적 사고 ····· 19
1) 비판적 사고의 개념 및 구성요인 ····· 19
2) 사회과에서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 ····· 27
3. 비판적 사고와 정치적 관용 ····· 28
1)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8
2) 비판적 사고와 정치적 관용의 관계 ····· 31
4. 선행 연구 검토 ····· 34
1) 정치적 관용 관련 연구 ····· 34
2) 비판적 사고 관련 연구 ····· 37

Ⅲ. 연구 설계 ····· 38
1. 연구 가설 및 연구 모형 ····· 38
2. 연구 변인 및 측정 도구 ····· 40
1) 종속 변인 : 정치적 관용 ····· 40
2) 독립 변인 : 비판적 사고 기능, 비판적 사고 성향 ····· 41

3) 통제 변인 ····· 45
3.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 46
4. 자료 분석 방법 ····· 50

Ⅳ. 연구 결과 ····· 52
1. 기초 통계 분석 ····· 52
1) 측정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 52
2) 측정 변인들에 대한 상관분석 ····· 57
2. 정치적 관용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60
1) 비판적 사고가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 ····· 60
2) 비판적 사고 성향의 조절효과 분석 ····· 62

Ⅴ. 결론 ····· 65
1. 요약 및 논의 ····· 65
2. 제언 ····· 70

참고문헌 ····· 71
부록 ····· 78
Abstract ····· 90

표 목 차

[표 Ⅲ-1] 정치적 관용 척도의 설문 구성 ····· 41
[표 Ⅲ-2] 비판적 사고 기능 척도의 설문 구성 ····· 43
[표 Ⅲ-3] 비판적 사고 성향 척도의 설문 구성 ····· 45
[표 Ⅲ-4] 최종 연구 대상의 특성 ····· 49
[표 Ⅳ-1] 고등학생의 비판적 사고의 특성 ····· 53
[표 Ⅳ-2] 고등학생의 정치적 관용의 특성 ····· 54
[표 Ⅳ-3] 고등학생의 정치적 태도 관련 변인의 특성 ····· 56
[표 Ⅳ-4] 측정 변인 간 상관관계 ····· 58
[표 Ⅳ-5] 정치적 관용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 60
[표 Ⅳ-6]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 63

그 림 목 차

[그림 Ⅲ-1] 관계 분석을 위한 연구 모형 ····· 39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 사회의 현실은 자신과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타인의 자유를 짓밟고 억압하는 행태로 점철되어 있다. 특히 인터넷 환경을 중심으로 단순한 기분 나쁨의 표현을 넘어서서 아예 특정한 의견이 공론장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입막음하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SNS, 유튜브, 뉴스 기사 댓글 등에서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 어리석은 의견이라고 폄하하거나, 특정 집단이나 할 만한 주장이라는 식으로 매도하는 행태를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으며, 이러한 행태는 심지어 '캔슬 컬처(Cancel culture)'와 같은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다른 의견이나 주류와 다른 의견에 대해 집단적인 압력을 가하면서도 다수라는 명목 하에 그러한 행태를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여기에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도록 짜인 미디어의 알고리즘은 이러한 문제를 가중시키며 상태를 악화시킨다. 그 결과 이제는 우리 사회 내에서 다양한 의견 간의 소통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워졌으며,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며 각자의 세상에 살아가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정치적 의견의 유연성은 사라지고, 의견은 점점 더 극단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정치적 극단화 현상은 사회 구성원 간의 지속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 마련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특히, 다양한 의견이 표현되고 교류되는 과정에서 이견에 대한 억압적인 행태가 주를 이루게 된다면, 소수에 해당하는 의견은 그 타당성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한 채 묵살될 것이다. 물론 이견이 항상 옳거나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 누구도 어떠한 의견이 올바른 의견인지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 즉, 단순히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의견이라고 하여 쉽게 매도하고 비난하며 입막음하는 작금의 풍조는 건전한 의견 교류와 이를 통한 건실한 대안 마련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로 인한 피해를 해당 사회 구성원들이 떠안도록 만들 수 있다(Sunstein, 2015: 23).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극단화의 원인에는 정치적 불관용이 있다. 정치적 관용은 자신이 반대하는 집단에게까지 의견 표현의 자유와 같은 공적 영역에서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려는 태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정치적 관용의 부재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저해함으로써 정치적 극단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극단화의 현실을 더욱 악화되도록 만든다. 따라서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회과에서는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관용이라는 자질을 함양하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과에서 관용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되는 정치 진영 간의 극단적 대립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으며, 이는 우리 교육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한다.

이러한 의문과 관련하여, 현행 정치적 관용 교육이 불관용을 초래하는 요인들에 대한 대응에 미비했다는 점을 관용 교육의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는 불관용을 촉발하는 각종 요소들이 즐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사회과 정치교육은 그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치적 관용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용납하려는 의지로서, 자연적으로 길러지기 어려운 정치적 태도이다. 따라서 정치교육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불관용은 가중되고 정치적 극단화 역시 더욱 극단으로 치닫는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과 및 사회과의 연구자들에게는 정치적 관용 교육 방안에 대한 깊은 성찰과 검토를 바탕으로 정치적 관용 교육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요청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불관용에 대응하지 못하는 현행 사회과 정치교육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을 궁극적인 연구 목적으로 삼았다. 그리고 사회과에서 정치적 관용 교육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요소로서 비판적 사고에 주목하였다. 비판적 사고는 논리성, 합리

성, 반성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고로서 시민들로 하여금 불관용을 초래하는 요인들에 대항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케 할 수 있다. 비판적 사고의 부재는 각종 미디어가 자극하는 자극적인 감정과 그릇된 직관들에 대한 제어 능력의 상실로 이어져, 부정적 감정의 표출 및 그로 인해 파생되는 공론장·소통·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 교육을 통해 불관용을 초래하는 이러한 감정과 직관을 제어하고 정치적 관용을 함양케 함으로써 다시금 공론장에서의 이성적인 소통과 이를 통한 건전한 대안 마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비판적 사고와 정치적 관용의 관계에 주목하여, 양자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인 비판적 사고와 정치적 관용 간의 관계가 규명될 경우, 비판적 사고를 활용하여 현행 정치적 관용 교육을 개선하고 정치적 극단화의 현실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민주주의의 위기로 대두되고 있는 정치적 극단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불관용을 초래하는 원인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사회과 정치적 관용 교육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불관용의 원인을 극복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비판적 사고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와 정치적 관용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 문제 1 : 고등학생의 비판적 사고는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비판적 사고는 인지적 요인인 비판적 사고 기능과 성향적 요인인 비판적 사고 성향으로 구분될 수 있다. 비판적 사고가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명히 하고, 정치적 관용 교육에서 비판적 사고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 기능이 정치적 관용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비판적 사고 성향이 조절변인으로 기능하는지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 기능 및 사고 성향이 고등학생의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 기능이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이 비판적 사고 성향에 의하여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하여서도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른 두 번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 문제 2 : 고등학생의 비판적 사고 기능과 정치적 관용 간의 관계는 해당 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제시된 두 가지 연구 문제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 요소이자 최근 정치적 극단화의 맥락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시민적 자질인 정치적 관용과 비판적 사고가 어떠한 관계로 맺어져 있는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비판적 사고를 활용한 정치적 관용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와 정치적 관용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고등학생들에게 있어 비판적 사고와 정치적 관용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를 활용한 정치적 관용 교육이 정치적 극단화의 현실을 극복하고 정치적 관용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정치교육에 있어 비정치적 요소를 활용한 정치교육의 가능성을 밝힐 수 있다. 비판적 사고는 정치적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사고로서, 만일 비판적 사고가 정치적 관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입증될 경우 비정치적 요소를 활용한 정치교육의 가능성이 규명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사회과교육에 있어 기능교육을 통한 가치태도교육의 가능성을 밝힐 수 있다. 비판적 사고 기능은 사회과에서 강조하는 고차사고력 가운데 하나로, 비판적 사고 기능이 정치적 관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입증될 경우 기능교육을 활용한 가치태도교육의 가능성이 규명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비판적 사고를 비판적 사고 기능과 비판적 사고 성향으로 나누어서 측정함으로써 양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판적 사고 교육에 대한 함의를 얻을 수 있음은 물론 정치적 관용 함양에 있어 양자에 대한 교육이 의도적으로 병행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규명할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비판적 사고기능과 비판적 사고성향 이외에도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고 그 유의성을 검증함으로써 향후 사회과 정치교육의 개선에 있어 주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설문 조사를 활용한 연구로서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만으로는

비판적 사고가 정치적 관용에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비판적 사고가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적으로 엄밀하게 규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시간과 비용 등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편의 표집을 활용하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제약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와 정치적 관용 간의 이론적 연결을 탄탄히 하고자 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통제변인들을 분석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과와 정치적 관용

1) 정치적 관용의 개념 및 특성

(1) 관용의 개념과 유형

킹(King, 1976)에 따르면 관용은 반대(objection)와 용납(acceptance)이 결합된 개념이다. 이 때 반대는 대상에 대해 동의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는 1차적 평가의 결과이며, 이러한 1차적 평가로부터 자연히 따라 나오는 부정적 행동을 의도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으로 중지하려는 2차적 평가의 결과를 용납으로 볼 수 있다(김희봉, 2002: 26). 즉, 관용은 싫어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부정적 행위를 중지하거나 인내심 있게 참아 내는 태도를 의미한다(김용환, 1997: 26). 보그트(Vogt, 1997)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관용을 싫어하거나, 반대하거나, 위협적으로 느끼거나, 기타 그 밖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대상과 맞닥뜨렸을 경우에 이를 인내하는 의도적인 자기 규제(self-restraint)로 정의하였다. 이때 인내란 법적인 억압은 물론 밀(J. S. Mill)이 주장한 여론에 의한 폭력(tyranny of public opinion)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Mendus, 1989; 조영제, 1998: 65에서 재인용).

이러한 관용 개념은 관련된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 보그트(1997)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관용적이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로 관용을 행하는 사람과 관용되는 대상 간의 차이가 존재해야 하며, 둘째로 관용을 행하려는 사람이 그러한 차이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첫 번째 조건과 관련하여 관용은 동의와 구별된다.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용납한다는 관용의 개념상 자신의 입장과 아무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 동의할 수밖에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관용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좋아하거나 동의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관용 개념이 성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 조건과 관련하여 관용은 무관심과 구별된다. 만일 사람들 간에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아무도 그러한 차이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단순히 무관심하다면, 이는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용납한다는 관용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조영제, 1997: 309).

한편, 관용 개념은 그 대상에 따라 정치적 관용, 도덕적 관용, 사회적 관용의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Vogt, 1997: 17-18). 첫째, 정치적 관용은 공적 영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관용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연설 혹은 시위를 하거나, 전단을 배포하거나, 결사를 조직하는 행위 등이 정치적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치적 관용은 후술할 다른 관용의 획득 및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관용 가운데서도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다.

둘째, 도덕적 관용은 사적 영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관용을 의미한다. 도덕적 관용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사적인 행위들이 공적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행위들이 사적인 것으로서 정부가 통제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지 등이 쟁점이 된다. 예를 들어, 음란물, 동성애, 낙태와 같은 성 관련 행위들은 도덕적 관용이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셋째, 사회적 관용은 인간의 존재와 관련된 관용을 의미한다. 즉, 피부색이나 언어와 같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초기 사회화의 결과로서 가지게 되는 특성에 대한 관용이 사회적 관용의 범주에 해당한다. 사회적 관용은 대개 귀속적 특성 그 자체보다는 해당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공적 영역 혹은 사적 영역에서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행위를 하는 것과 관련된다. 예컨대, 과거 흑인과 백인이 같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역사를 사회적 불관용의 사례로 들 수 있다.

(2) 정치적 관용의 개념 및 중요성

① 정치적 관용의 개념

정치적 관용(political tolerance)은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이자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로서 강조되어 왔다(Avery, 1988: 183). 정치적 관용에 대한 연구는 스타우퍼(Stouffer, 1955)가 공산주의자와 같은 사회 내의 비순응 집단(nonconformist group)에게까지 절차적 권리를 인정할 의향에 대해 연구한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정치적 관용에 대해 연구한 국외 학자들의 대표적인 정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설리번, 피어슨과 마르쿠스(Sullivan, Piereson, & Marcus, 1979)는 정치적 관용을 "일반적으로 반대하는 대상에 대하여 참고 견딜 수 있는 용의"로 정의하였으며, 니 외(Nie et al., 1996)는 "상대방의 의견이나 태도가 위협적이고 적대적이더라도 그들 역시 그러한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하였다. 깁슨과 빙엄(Gibson & Bingham, 1982)은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의견을 지닌 집단에 대하여서도 정치적 자유와 같은 시민적 권리를 인정하려는 의지로서,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도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음을 기꺼이 인정하려는 의향"으로 정치적 관용을 정의하였으며, 오웬과 데니스(Owen & Dennis, 1987)는 "자신이 반대하는 신념이나 요구를 가진 집단에게까지 정치적 표현을 허용하려는 의지"라고 정의하였다.

국내 학자들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정치적 관용을 정의하고 있다. 김명정(2009)은 "사회적, 인종적, 종교적, 정치적 집단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허용하고, 다양한 이해관심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태도"로 정치적 관용을 정의하였다. 가상준(2015)은 정치적 관용에 대하여 "자신과 이해를 달리하는 의견 및 주장일지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허용되어야 하며, 그들의 권리 행사의 일부분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포용력"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정치적 관용의 정의는 특정한 대상에 대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용납한다는 킹(1976)의 관용 개념을 공적 영역, 즉 정치적 의견 표현의 영역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적 관용에 대한 국내외 학자들의 정의들로부터 공통된 요소를 추출하여 정치적 관용 개념을 정의하면, 정치적 관용이란 '자신이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개인 혹은 집단에게까지 자유로운 의견 표현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려는 의지'라고 할 수 있다.

② 정치적 관용의 측정 방식

정치적 관용 연구의 초기에서부터 정치적 관용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존재해 왔다. 정치적 관용이 연구되기 시작한 초기 저작 가운데 하나인 스타우퍼(1955)의 연구에서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미리 정해 놓은 특정 집단(예: 나치주의자)에게 어느 수준까지 정치적 자유를 인정할 것인지 질문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관용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설리번, 피어슨과 마르쿠스(Sullivan, Piereson, & Marcus, 1979)는 이러한 측정 방식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정치적 관용을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로 하여금 연구자가 미리 정해 놓은 집단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연구 참여자가 직접 반대 집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종차별주의에 동조하는(sympathetic) 사람이 '인종차별주의자들도 완전하고 동등한 시민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를 두고 관용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마찬가지로 인종차별주의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시민적 권리를 인정하겠다고 대답한 사람을 관용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스타우퍼 식의 측정이 관용 개념이 내포하는 '반대에 대한 용납'의 의미를 명확히 포착하지 못했다는 설리번, 피어슨과 마르쿠스의 지적은 그

타당성이 널리 인정되었다. 이에 최근에는 정치적 관용에 대한 많은 연구가 관용을 측정하기에 앞서 연구 참여자로 하여금 반대하거나 싫어하는 정치 집단을 직접 선택한 후 설문에 답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③ 정치적 관용의 중요성

정치적 관용은 정치적으로 이질적인 사회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Gibson, 1992).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관용적인 태도를 가질 경우 사회 내의 갈등이나 대립이 완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반면,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불관용적 태도를 가닐 경우 편협한 정치적 행동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Sullivan et al., 1981; 가상준, 2015: 134).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적 관용은 민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이자 민주주의의 주요 구성 요소가 된다.

특히 정치적 관용은 사회적 관용이나 도덕적 관용의 범주를 초월하여 적용되는 관용으로서, 다른 여러 관용들 가운데서도 각별히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관용으로 여겨진다(Vogt, 1997: 93). 이는 정치적 관용이 개인들로 하여금 사회 내에 존재하는 사회적·도덕적 영역의 행위에 대한 정책적 규제를 반대하거나 옹호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성소수자가 아동을 입양하는 행위는 도덕적 관용이나 사회적 관용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행위이지만, 현실에서 성소수자들이 그러한 행위에 대한 불관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같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적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만일 성소수자라고 하여 공론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아동을 입양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해 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과거 미국에서 흑인들에게 평화적으로 결집하여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민권 운동을 통해 지금과 같은 인종적 평등이 달성되기는 어려웠을 것이

다. 실제로 사적 영역이나 도덕적 영역의 활동의 허용 여부는 오늘날의 정치 공론장에서 가장 논쟁적이며 흥미로운 주제로 작용한다(Vogt, 1997: 18-19, 93).

요컨대, 정치적 관용, 즉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같은 공적 영역에서의 의견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도덕적 자유와 권리의 획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다른 관용에 비해 정치적 관용이 민주 사회에서 각별히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이유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적 관용은 정치학자들에 의해 오랜 기간 널리 연구되어 왔으며, 정치적 관용에 대한 지지는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되어 왔다(Vogt, 1997: 19).

2) 사회과의 목표로서 정치적 관용

관용은 사회과가 주된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가치·태도 측면의 자질에 해당한다. 사회과는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태도 등을 학습하여 민주사회에 요청되는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게 하려는 교과목이다(차경수·모경환, 2018: 14).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사회과에서 육성하려는 민주 시민은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의 습득을 바탕으로 인권 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등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나아가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교육부, 2018: 3). 즉, 사회과에서는 교과가 목표로 하는 바람직한 민주 시민의 자질로 인권 존중과 관용의 정신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관용 가운데서도 정치적 관용은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중요성을 갖는다. 정치적 관용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정치권력의 획득을 위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은 불가능

하다(Gibson, 1998: 40). 따라서 정치적 관용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획득하고자 하는 그 어떠한 자유나 권리도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관용은 구성원들의 조화로운 삶을 달성하기 위한 최상의 가치는 아니라 하더라도 절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가치로서 중요성이 인정된다(Vogt, 1997: 43-44).

또한 정치적 관용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갈등을 줄이고 공존을 모색하기 위한 덕목으로서 중요성을 갖는다. 서로 다른 삶의 자세와 신념이 공존하는 다원주의 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신과 반대되는 집단이 공적 영역에서 그러한 삶의 자세와 신념을 주창하도록 용인할 수 있는 정치적 관용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다원주의 사회는 성립할 수 없다(조영제, 1997: 305-308). 즉, 정치적 관용과 다원주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서 가치의 다원성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정치적 관용은 목표를 잃을 것이며 정치적 관용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가치의 다원성은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관용은 개인 및 사회의 오류가능성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요소로서 중요성을 갖는다. 밀(J. S. Mill)은 모든 인간은 오류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보면서, 상호 간의 비판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오류가능성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정치적 관용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이견에 대한 억압만이 존재할 것이므로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오류가능성을 극복할 기회는 좌절된다. 따라서 정치적 관용은 의견 교환과 상호 비판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중요하다(Martinson, 2005).

요컨대, 사회과에서 목표로 하는 정치적 관용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까지 억지로 인정하고 승인할 것을 요하지 않는 대신, 자신이 부정적으로 여기고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그러한 의견을 제시할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인정할 것을 요청한다. 이는 자신의 의견을 변경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판단의 문을 열어 두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에 비하여 시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서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비판을 통해 오류를 개선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더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에게 정치적 관용은 개인의 자유 보장과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민적 자질로서 의의를 갖는다.

3) 정치적 관용 교육의 한계와 보완 방안

정치적 관용 관련 연구에서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는 결과로 관용에 대한 교육의 영향력을 들 수 있다(Stouffer, 1955; McClosky & Brill, 1983; Bobo & Licari, 1989). 정치적 관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하는가와 상관없이 교육은 정치적 관용의 중요한 예측변수이며(Gibson, 1992), 교육이 관용에 미치는 효과는 강건(robust)하다(Vogt, 1997: 94).

그러나 정치적 관용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는 교육수준과 정치적 관용 간의 강건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가상준, 2015; 가상준·윤종빈·유성진, 2010). 이와 같은 상반되는 결과는 교육이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단순히 교육연한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관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의 함양에 기여할 때에만 발생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치적 관용이 높아지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 교육이 정치적 관용과 관련하여 단순한 학력(學歷)에 불과할 뿐 학력(學力)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건전한 민주 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시민의식 함양이라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외국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효과가 낮게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현행 정치적 관용 교육의 한계와 관련되는 질문으로, 현행 정치적 관용 교육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한계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현행 정치적 관용 교육은 관용의 종류나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

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천편일률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그트(1997)에 의하면 관용은 정치적 관용, 도덕적 관용, 사회적 관용의 세 종류로 구분되며, 학교교육이 관용적 태도를 길러줄 수 있는 방안에는 집단 간 접촉(contact), 시민교육(civic education), 인지발달(cognitive development), 성격발달(personality development)의 네 가지가 존재한다. 교육의 단계 역시 초등, 중등, 고등 교육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교육이 관용을 증진할 수 있는 경로에는 적어도 36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경로가 가능하다.

그러나 높은 사회적 관용 수준이나 높은 도덕적 관용 수준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여 반드시 정치적 관용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없듯이, 정치적 관용, 도덕적 관용, 사회적 관용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요인 또한 각각 다르다. 따라서 관용 교육은 목표가 되는 관용의 특성에 맞게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생 간에는 발달단계상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에게 효과적인 관용 교육이 고등학생에게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관용 교육은 목표로 하는 관용의 특성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정치적 관용 교육은 관용에 대하여 이와 같이 다차원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으며, 추상적인 권리교육 일변도에 머무르고 있다. 정치적 관용이 일반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과 같은 보편적 인권에 의해 정당화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관용은 추상적인 권리 인식을 넘어서서 현실에서 자신이 반대하는 특정한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나 인식을 극복하고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태도임을 고려할 때 추상적 차원의 권리교육만으로는 정치적 관용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젤만(Zellman, 1975: 45)은 중등학교 학생들이 정치적 자유와 권리에 대한 규범을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반대 집단에 대한 권리의 인정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로 단순한 구호(slogan)로서 실행되는 관용 교육의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현행 사회과 정치교육은 젤만이 지적한 교육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예컨대 관용을

다룸에 있어 단순히 보편적 인권 개념에 호소하는 등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당위적인 문구로 관용을 가르치고 있으며(황정숙, 2009: 51),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소수(小數) 존중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규범적 서술에 그치고 있다(황정숙, 2009: 58). 관용의 정의와 필요성, 한계, 정치적 권리에 대한 지식 등으로 구성되는 관용지식이해가 관용적 행동경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길현주, 2007)로 미루어 볼 때, 효과적인 정치적 관용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권리 교육에서 벗어나 다른 관용과 구별되는 정치적 관용의 특성 및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관용 교육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정치적 관용 교육은 불관용을 초래하는 요인에 대한 대응에 있어 미비하다. 김용환(1997)에 따르면 관용 교육에 있어서는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는 불관용을 초래하는 요인의 제거를 통해 관용을 달성하려는 소극적 접근법이며, 둘째는 가치교육을 통해 관용을 직접 가르치려는 적극적 접근법이다(김용환, 1997: 167). 불관용의 요인들을 제거하는 소극적 차원의 관용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졌을 때에만 관용과 관련된 가치와 신념을 가르치는 적극적 차원의 관용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관용 교육을 위해서는 소극적 접근법과 적극적 접근법이 적절히 병행되어야 한다(김희봉, 2010: 32).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 정치적 관용 교육은 불관용을 초래하는 요인을 제거하여 관용을 달성하려는 소극적 접근법보다는 권리교육이나 가치교육을 통해 관용을 직접 가르치려는 적극적 접근법에 치중하고 있다. 불관용을 증폭시키는 요인에 대한 대응 없이는 추상적 차원의 권리교육이 무용한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관용 교육은 단순히 모든 인간에게 시민적 자유와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불관용을 초래하는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현행 정치적 관용 교육은 다음의 두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목표로 하는 관용의 종류와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천편일률적인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육적 효과가 낮다. 둘째, 적극적 차원의

관용 교육에 치중하여 불관용을 초래하는 요인에 대한 대응이 미비하다. 따라서 현행 정치적 관용 교육은 다음의 두 가지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첫째, 목표로 하는 관용의 종류와 학습자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둘째, 적극적 차원의 관용 교육에 그치지 않고 소극적 차원의 관용 교육을 통해 불관용을 초래하는 요인에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 정치적 관용 교육은 가장 먼저 목표로 하는 관용인 정치적 관용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될 필요가 있다. 정치적 관용은 정서보다는 인지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관용은 기본적으로 상대 집단에게 형성된 부정적 감정이 억압적 행태로 표출되는 과정에서 적절한 통제 기제를 발휘하여 억압적 행태를 억제하는 과정을 통해 발현된다. 이때 정치적 관용은 초기에 형성된 부정적 정서와 그로 인한 억압적 행동 사이에 사고를 개입시키기를 요구한다(Vogt, 1997: 135). 물론 상대 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제에는 인지적 기제뿐 아니라 정서적 기제도 존재할 수 있지만, 각종 혐오 관련 밈(meme)이나 가짜 뉴스 등으로 인해 상대 진영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극대화된 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 공감과 같은 정서적 기제를 통해 극대화된 부정적 감정과 억압적 행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견해는 다소 비현실적이다. 보그트(1997) 역시 사회적 관용이나 도덕적 관용과 달리 정치적 관용에 대해서는 인지적 통제 기제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다(Vogt, 1997: 146). 마르쿠스 외(Marcus et al., 1995)의 연구에서도 정치적 관용과 관련하여 그들의 사고(thoughts)에 집중할 것을 요청받은 주체들이 그들의 정서(feelings)에 집중할 것을 요청받은 주체들보다 더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관용에 대해서는 정서 중심 접근보다는 합리적 사고와 같은 이성적 사고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 중심 접근은 특히 고등학생과 같이 사고력이 충분히 발달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할 때 그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정치적 관용 교육은 불관용을 초래하는 요인에 대한 대응을 목표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또한 사고를 활용한 교육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불관용은 두려움이나 공포의 감정, 이기주의, 우월주의, 광신주의 등의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데(김용환, 1997; 조영제, 1998; 김희봉, 2002: 31에서 재인용), 합리적 사고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이러한 심리적 요인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이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우월주의는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 또한 특정 신념에 대한 배타적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광신주의는 폐쇄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특징으로 하므로, 정확한 정보 및 지식을 제공하고 사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 사고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김희봉, 2002: 32). 따라서 관용 교육이 불관용을 초래하는 심리적인 요인에 대한 대응을 목표로 할 경우, 관용 교육은 학생들에게 합리적인 사고를 가르침으로써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한편 불관용을 초래하는 또다른 요인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제시할 수 있는데(정문성·원순자·이바름, 2017), 이러한 편견이나 고정관념 역시 그릇된 사고과정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 올포트(Allport, 1954)는 편견이 그릇된 일반화를 촉진하는 잘못된 인지과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을 밝히고, 편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합리적 사고의 가능성을 지목하였다(Vogt, 1997: 122에서 재인용). 이에 더하여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미디어가 가짜 뉴스 등을 통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형성하며, 불관용을 초래하는 심리적 요인을 자극하는 기폭제로 작용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불관용적 태도가 높아진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올바른 사고를 통하여 불관용의 요인에 대항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주는 교육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요약하여 현행 정치적 관용 교육의 보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정치적 관용에 있어서는 다른 관용과 달리 공감과 같은 정서보다는 합리적 사고와 같은 인지적 통제 기제의 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불관용을 초래하는 요인들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사고는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관용 교

육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사고 역량을 길러주는 방식으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때 합리적이고 올바른 사고와 관련하여 사회과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사고로 비판적 사고를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비판적 사고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가 정치적 관용 함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고자 한다.

2. 사회과와 비판적 사고

1) 비판적 사고의 개념 및 구성요인

(1) 비판적 사고의 개념과 특성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는 어떤 사물이나 상황, 지식 등의 순수성이나 정확성 여부, 어떤 지식이 허위인지 여부 등을 평가하는 정신적 능력을 의미한다. 비판적 사고는 이성적인 판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다른 고차사고력과 구분되며, 비판적 사고를 지닌 사람은 진짜와 가짜, 균형의 파괴, 장점과 단점 등을 구분할 수 있다(차경수·모경환, 2018: 258-259).

비판적 사고에 대한 논의는 듀이(Dewey)로부터 출발하였다. 듀이(1910)는 적절하게 검토된 근거를 바탕으로 펼치는 사고를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inking)로 지칭하면서, 이를 권위에 의존하거나, 자기 이익에 호소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단순히 모방하는 등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사고(ordinary thinking)와 구분하였다(차경수·모경환, 2018: 248). 즉 반성적 사고는 “어떤 신념이나 가정된 지식의 형식에 대하여 그것의 근거와 도달하고자 하는 결론을 조명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심스럽게 고려해 보는 것”(Dewey, 1910: 6; 조아미

외, 2009: 37에서 재인용)으로서, 문제 해결에 앞서 판단을 유예하고 신념이나 근거를 찾는 사고를 본질로 한다(옥일남, 2012: 134). 이러한 반성적 사고는 비판적 사고 개념을 이루는 핵심적인 속성으로 작용한다. 비판적 사고는 '반성적 사유에 기반을 둔 회의주의'로서, 비판적 사고가들은 자신과 타인의 사고의 합리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좋은 이유를 의식적으로 추구하고 사용한다. 즉, 비판적 사고 개념에 내재된 반성성은 좋은 사고가 갖추어야 할 의식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비판적 사고의 의도적이고 목적 추구적인 성격을 드러낸다(이광성, 2015: 126).

듀이 이후 학자들은 비판적 사고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제시해 왔다. 에니스(Ennis)는 비판적 사고를 체계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한 초기 학자이다. 초기에 에니스는 비판적 사고를 "진술에 대한 올바른 평가"로 정의하였으나(Ennis, 1962: 82-83), 이러한 정의는 비판적 사고를 언어적 진술에 대한 평가에 한정함으로써 비언어적 현상이나 정책, 제도 등에 대한 평가를 배제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이에 에니스는 차후 비판적 사고를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춘 합리적이고 반성적인 사고"로 재정의하였다(Ennis, 1987: 10).

맥펙(McPeck)은 비판적 사고의 영역을 진술에 대한 평가에 한정하지 않고 인간의 정신적 노력을 요하는 문제나 활동으로 확대하였다(박상준, 2006: 125). 맥펙에 따르면 비판적 사고는 "반성적 회의를 가지고 어떤 활동에 관여하는 성향과 기능"이다(McPeck, 1981: 14-15). 구체적으로 "어떤 정신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 또는 활동을 X라 하고, 관련 분야나 문제 영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증거를 E라 하며, X 내의 어떤 명제나 활동을 P라 할 때 누군가 E 또는 E의 부분집합이 진리 또는 P의 존재 가능성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식으로 X에 접근하려는 기능과 성향을 가진다면 그는 X라는 분야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로 볼 수 있다."(McPeck, 1981: 14-15). 이러한 맥펙의 비판적 사고 개념은 비판적 사고를 사고 기능뿐 아니라 사고 성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베이어(Beyer, 1985)는 비판적 사고를 "진술, 논증, 경험에 대하

여 평가하고 오류를 찾아내는 사고"로 정의하면서(Beyer, 1985: 270), 분석과 평가가 결합된 복합 사고로서 비판적 사고를 파악했다(박상준, 2006: 125). 에니스나 맥펙이 비판적 사고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평가 측면에 치중한 반면, 베이어는 평가와 더불어 분석 측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비판적 사고 개념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었다. 대상의 가치나 수준을 평하는 것을 의미하는 평가(評價)는 기본적으로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잘못된 것을 밝히는 비판(批判)과 중첩적 의미를 갖는다(권희경 외, 2020: 133). 따라서 비판적 사고에서 평가가 주요한 활동이 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한편으로 복잡한 현상이나 대상을 이를 구성하는 단순한 요소로 분해하는 분석(分析) 역시 비판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비판적 사고의 대상이 되는 진술이나 현상은 대개 복잡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비판이나 평가에 있어 분석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권희경 외, 2020: 133). 따라서 비판적 사고에서 평가와 더불어 분석 측면에 초점을 맞춘 베이어의 정의는 비판적 사고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비판적 사고의 개념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미국철학회(American Philosophical Association, APA)가 비판적 사고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만들어 낸 델파이 보고서(Delphi report)의 비판적 사고 개념을 들 수 있다. 델파이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판적 사고의 개념은 에니스, 베이어를 비롯하여 비판적 사고의 권위자들이 대규모로 참여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특히 의의가 있다. 델파이 보고서에서는 비판적 사고를 "해석, 분석, 평가와 추론을 산출하려는 의도적이고 자기 규제적인 판단인 동시에, 그 판단의 근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증거적, 개념적, 방법론적, 준거적, 맥락적 측면들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산출하려는 의도적이고 자기 규제적인 판단"으로 정의하였다(Facione, 1990: 1-5).

델파이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비판적 사고 개념은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근거에 기반하여 사고하며, 섣부른 판단을 유예하려는 비판적 사고의 반성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또한 근거의 적절성과 더불어

기타 개념, 방법론, 준거, 맥락적인 측면들을 두루 고려하는 비판적 사고의 분석적이고 평가적인 속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나아가, 델파이 보고서에서는 비판적 사고 이외에 비판적 사고가가 갖는 특성을 함께 기술하였다. 델파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비판적 사고가의 정의는 “습관적으로 호기심이 많고, 정보에 밝으며, 신뢰로운 사고를 하고, 개방적이며, 융통성 있고, 공정한 평가를 내리고,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며, 신중히 판단하고, 반복하여 생각하며, 이슈를 명확히 하고, 복잡한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부단히 적절한 정보를 수집하고, 합리적 기준을 세우고, 탐구적이며,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인내하는 사람”이다(Facione, 1990: 2). 이러한 비판적 사고가의 특성을 명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델파이 보고서는 비판적 사고가 단순한 사고 기능이 아니라 사고 성향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분명히 하였다.

박상준(2006)은 비판적 사고의 개념을 다룬 국내외의 연구를 종합하여 비판적 사고를 “객관적이고 합당한 근거에 의거하여 자신이나 타인의 진술, 신념, 정보, 지식, 사건, 행위, 정책, 제도 등의 신뢰성, 진실성, 적합성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사고기능과 사고성향”(박상준, 2006: 126)으로 정의하고, 비판적 사고의 본질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비판적 사고는 어떠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평가하려는 사고이다. 이러한 의문 제기와 평가는 대상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뢰성과 적합성을 적절하게 검증하여 확실히 승인하려는 목적을 지닌다(박상준, 2006: 126-127). 즉, 비판적 사고는 완전성 및 진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비난과는 구분된다(차경수·모경환, 2018: 259). 둘째로, 비판적 사고는 판단이나 평가를 내림에 있어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하려는 사고이다. 이는 비판적 사고를 다른 고차사고력과 구분하는 비판적 사고만의 고유한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셋째로, 비판적 사고는 자기 자신의 사고와 행동에 대해서도 근거에 기반하여 반성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사고이다. 비판적 사고가 대상에 대한 비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다면, 그러한 평가의 대상으로 자기 자

신이 포함되어야 할 것은 자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판적 사고는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려는 태도와 경향성인 사고 성향을 포함한다(박상준, 2006: 127).

이러한 비판적 사고에 대한 국내외 학자들의 정의들로부터 공통된 요소를 추출하여 비판적 사고 개념을 정의하면, 비판적 사고란 '건설적인 목적을 위하여 타당성에 대한 회의를 바탕으로 판단을 유예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포함한 대상의 신뢰성과 적합성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하려는 사고 기능과 성향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2) 비판적 사고의 구성요인

글레이저(Glazer, 1941)가 비판적 사고를 "자신의 경험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문제와 주제를 사려 깊은 방식으로 고려하려는 성향적 태도이자, 논리적 탐구와 추리의 방법들에 대한 지식과 그러한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규정한 이래로(Glazer, 1941; 김영정, 2004: 95에서 재인용), 많은 학자들은 비판적 사고를 기능(skill)과 성향(disposition)의 두 측면을 갖는 것으로 정의해 왔다. 국내외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비판적 사고를 인지적 차원의 비판적 사고 기능과 정의적 차원의 비판적 사고 성향으로 나누어 보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Facione, 1990; 조아미 외, 2009; 오연주, 2010; 정문성·원순자·이바름, 2017). 따라서 비판적 사고를 비판적 사고 기능과 비판적 사고 성향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① 비판적 사고 기능

비판적 사고의 인지적 측면에 해당하는 비판적 사고 기능(critical thinking skills)은 비판적 사고를 활용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능력으로서, 주로 객관적 근거에 의거하여 대상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사고의 절차 및 방식과 관련된 능력을 의미한다(박상준, 2006). 비판적 사고 기능의 하위 구성요인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에니스(Ennis, 1962)는 비판적 사고 관련 연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상적인 비판적 사고 기능의 구성 요소를 ① 진술의 의미 파악하기, ② 추론 과정의 모호성 판단하기, ③ 진술들 간의 모순 판단하기, ④ 결론의 필연성 판단하기, ⑤ 진술의 구체성 판단하기, ⑥ 진술이 원리의 적용인지 판단하기, ⑦ 관찰에 의한 진술의 신뢰성 판단하기, ⑧ 귀납적 결론의 정당성 판단하기, ⑨ 문제의 이해 가능성 판단하기, ⑩ 숨겨진 가정의 타당성 판단하기, ⑪ 용어의 적절성 판단하기, ⑫ 주장된 권위에 의한 진술의 수용 가능성 판단하기의 12가지로 제시하였다.

또한 베이어(Beyer, 1985)는 비판적 사고 기능을 ① 증명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한 주장과 가치에 관한 주장 구분하기, ② 정보 원천의 신뢰성 여부 판단하기, ③ 진술의 사실적 정확성 판단하기, ④ 상황에 대한 정보, 주장, 근거의 관련성 및 적절성 판단하기, ⑤ 편견 발견하기, ⑥ 모호한 주장과 논쟁 파악하기, ⑦ 주장이 사실과 일치하는 정확성을 갖는지 판단하기, ⑧ 추리 과정에서 논리적 오류나 모순 발견하기, ⑨ 주장의 설득력 판단하기, ⑩ 상황이나 문제의 논쟁성 결정하기의 10가지로 제시하였다.

박상준(2006)은 비판적 사고 기능과 관련하여 제시된 여러 기능들 가운데 중복되는 기능들을 제외하고, 비판적 사고의 하위 기능을 ① 사실 부분과 가치 부분 구분하기, ② 제시된 근거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③ 객관적 근거에 의거해 평가하기, ④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⑤ 숨겨진 가정과 의도 찾아내기의 5가지로 제시하였다.

에니스의 비판적 사고 개념에 근거하여 비판적 사고 기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검사인 코넬 비판적 사고 검사(Cornell Critical Thinking Test)에서는 특정 주장이 주어진 자료에 의해 정당화되는지 판단하는 능력, 근거와 조건에 기초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능력, 진술이 전제로부터 따라 나오는지 판단하는 능력, 숨겨진 가정을 확인하는 능력, 애매한 논쟁을 간파하는 능력 등을 측정하고 있다(조아미 외, 2009: 63).

② 비판적 사고 성향

비판적 사고의 성향적 측면에 해당하는 비판적 사고 성향(critical thinking disposition)은 “비판적 사고에 대한 가치관, 동기, 태도, 사고습관 등 비판적 사고의 동인으로 작용하는 정의적 특성을 총칭하는 것”을 의미한다(김명숙, 2006: 93).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하위 구성요인 역시 비판적 사고 기능과 마찬가지로 학자마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폴(Paul, 1982, 1987)은 비판적 사고를 이루는 태도에 대하여 ① 명료성, 정확성, 공정성에 대한 열정, ② 사물의 바닥까지 도달하려는 열의, ③ 증거를 찾으려는 욕구, ④ 모순, 체계적이지 못한 사고, 일관성 없는 기준 적용에 대한 혐오, ⑤ 자신의 이익에 반하더라도 진리에 대해 갖는 헌신, ⑥ 사회적으로 열렬히 신뢰받고 인정받는 것에 대한 의문시, ⑦ 오랫동안 지녀온 신념을 버리는 데 따르는 두려움을 기꺼이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시하였다.

파시온(Facione, 1994)은 델파이 보고서를 기초로 비판적 사고 성향을 ① 자신의 이익이나 기대와 상관없이 진실을 탐구하려는 진실추구(truth-seeking), ② 편견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려는 개방성(open-mindedness), ③ 문제 해결을 위해 합리적 근거를 활용하려는 분석성(analyticity), ④ 조직적이고 집중적으로 탐구에 임하려는 체계성(systematicity), ⑤ 자신의 추론 과정을 신뢰하려는 자신감(critical thinking self-confidence), ⑥ 지적인 호기심과 학습에 대한 갈망을 의미하는 탐구성(inquisitiveness), ⑦ 오류가능성을 인지하고 탐구에 임하려는 성숙성(maturity)의 7가지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허경철 외(1991)는 비판적 사고 성향을 ① 일반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실이나 신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타인과 자신의 사고 과정에 언제나 오류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건전한 회의성, ② 자신이 참이라고 알고 있는 지식을 부정하는 진술에 대하여 충분한 근거가 있다

면 이를 기꺼이 진실로 받아들이고, 특정 입장의 지지를 위해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려는 지적 정직성, ③ 감정적이거나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려는 객관성, ④ 사고의 전 과정을 통틀어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체계성, ⑤ 타당하고 충분한 근거가 확보될 때까지 결론을 보류하려는 철저성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비판적 사고 성향에 대한 국내외의 주요 척도를 종합하여 제작된 비판적 사고 성향 검사인 김명숙(2006)의 K 비판적 사고성향검사 (K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est)에서는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하위 요인을 다음의 8가지로 제시하였다(김명숙, 2006: 97-98).

① 진실에 대한 가치 지향: 진실을 사회적 압력이나 자기 이익 등 어떤 것보다 더 우위에 놓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
② 사고의 신중성: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결론에 도달하지 않고 생각을 신중하게 하는 성향
③ 비판적 사고에 대한 동기: 비판적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응하는 마음
④ 근거확인/합리적 정확성 추구: 어떤 주장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전에 그 주장의 근거인 이유와 증거 등을 확인하고 주장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경향성; 사고 과정에 이성, 맥락, 증거, 기준의 적용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⑤ 사고의 개방성: 일종의 열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편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민감하게 고려하면서 다양한 견해에 대해 알고자 하는 관대한 마음
⑥ 공정성 추구: 판단을 내릴 때 어떤 권위, 친분, 금권, 대중의 힘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 개인 중심성과 사회 중심성을 탈피하는 마음
⑦ 지적 호기심: 다양한 사고 문제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각하는 마음

⑧ 사고의 자기 규제성: 자기 자신의 사고 과정을 점검하고 관리하며,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부지런하고 일관되게 집중하는지를 점검하는 마음

2) 사회과에서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

비판적 사고는 “불분명한 사태의 의미를 객관적이고도 명확하게 파악하고 수용하기까지에 이르는 일련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기능과 태도(이광성, 2015: 125-126)”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평가가 중요해짐에 따라 하나의 삶의 방식이자 윤리로 인식되어 왔다(Sears & Parsons, 1991: 45-68; 차경수·모경환, 2018: 240에서 재인용).

특히 지식과 정보가 대규모로 생산되고 빠르게 유통되는 정보 사회의 도래로 인해 정보에 담긴 주장의 타당성을 객관적인 근거에 비추어 검토하고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으로서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보 사회에서 유통되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모두 신뢰할 만하고 유용한 정보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가 부족할 경우 잘못된 정보를 진실이라고 받아들임으로써 사회 문제를 야기하게 되거나, 불필요한 정보의 과잉으로 그릇된 선택을 내리게 될 위험이 있다(김명숙, 2006: 89-90; 박상준, 2006: 121). 따라서 교육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길러 줄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회과와 관련하여서도 비판적 사고는 중요한 교육 목표이자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정보 활용 능력과 함께 비판적 사고력을 교과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8). 사회 현상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과에서는 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제시된 대안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가 필수적인 역량으로 활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판단할 역량과 성향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지속되기 어려움을 고려할 때(박상준, 2006: 121-122), 사회과에서 비판적 사고는 현대 사회의 시민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비판적 사고와 정치적 관용

1)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은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해 왔다(Bobo & Licari, 1989; Avery, 2002; Avery et al, 1992; Sullivan et al, 1994; Golebiowska, 2020).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주요 요인으로는 연령, 소득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 자부심과 같은 심리·성격적 요인, 정치적 성향, 정치적 지식, 민주적 원칙에 대한 신념, 인지된 위협과 같은 정치 관련 요인이 존재한다.

가장 먼저 연령의 경우, 낮은 연령대일수록 이질적인 문화나 경험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수용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치적 관용과 관련된다(Sullivan et al., 1981; Mutz, 2002). 소득수준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다양한 경험에 노출됨으로써 관용의 가치를 내면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치적 관용과 관련된다. 자기 자신에 대한 높은 평가를 의미하는 자부심(self-esteem)의 경우, 낮은 자부심이 관용과 같은 정치적 규범에 대한 학습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관용과 관련된다(Sniderman, 1975).

정치 관련 요인과 관련하여, 정치적 성향의 경우 진보적 성향이 보수

적 성향에 비하여 새롭거나 이질적인 경험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치적 관용과 관련된다(McClosky, 1964). 앞서 제시된 연령, 소득수준과 더불어 정치적 성향의 경우 그 자체로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보다는 다양성이나 이질성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의 관련 속에서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정치적 지식의 경우 시민적 자유의 의미나 정치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높은 정치적 관용이 발휘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정치적 관용과 관련된다(Marcus et al., 1995; McClosky & Brill, 1983). 민주적 원칙에 대한 신념(support for democratic norms)의 경우 법 앞의 평등,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된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잘 이해할수록 자신이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집단이라도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관용과 관련된다(Sullivan et al., 1979; Gibson & Bingham, 1982). 인지된 위협(perceived threat)의 경우 정치적 반대 집단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는 인식이나 느낌이 강할수록 정치적 관용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Sullivan, Piereson, & Marcus, 1982).

한편, 이러한 요인들 외에도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서 교육이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은 정치적 관용의 중요한 예측변수이며, 교육이 관용에 미치는 효과는 강건하다(Stouffer, 1955; Sullivan, Piereson, & Marcus, 1982; McClosky & Brill, 1983; Bobo & Licari, 1989). 그러나 통계적으로 교육이 정치적 관용과 같은 긍정적인 정치적 태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지닌다 하더라도, 교육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정치적 관용에 기여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교육이 관용을 증진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관용 교육의 개선에 관한 충분한 시사점을 얻기 어렵다. 따라서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교육과의 관련성 속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이 요청된다.

골레비오스카(Golebiowska, 2020)의 연구는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 요인들을 총망라한 연구로서, 교육과 정치적

관용의 관계에 대한 매개변인으로서 인지적 정교화(cognitive sophistication), 권위주의적 성향(authoritarianism), 정치적 관심(political interest), 타인에 대한 신뢰(faith in people)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때 교육과 정치적 관용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네 가지 변수의 특성을 검토하여 교육이 정치적 관용을 촉진하는 경로를 구체화함으로써, 관용을 증진시키는 교육적 개입 방안을 명확히 할 수 있다. 골레비오스카(2020)의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지목된 네 변수는 모두 유의하였지만, 특히 인지적 정교화와 권위주의적 성향이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정교화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들을 의미있게 구성하며, 추가적이고 관련 있는 지식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Nie, Junn, & Stehlik-Barry, 1996; Bobo & Licari, 1989). 인지적 정교화 수준이 높을수록 소수 집단의 권리와 자유를 지지하는 헌법적 원칙들과 같이 정치적 관용 판단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들을 보유할 것이므로(McClosky & Brill, 1983), 높은 인지적 정교화 수준은 차이에 대한 편안함과 높은 정치적 관용으로 연결된다. 보보와 리카리(Bobo & Licari, 1989)는 교육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정치적 관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히면서, 교육과 관용 간 관계의 상당 부분이 인지적 정교화에 의해 매개된다고 보았다. 보보와 리카리에 따르면 높은 교육수준이 높은 정치적 관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까닭은 교육을 통해 증진되는 추론 과정(reasoning)의 복잡성이 더 높은 수준의 정치적 관용으로 이끄는 '냉정한 2차적 사고(sober second thought)'의 원천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권위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질적인 집단으로부터 더 큰 위협을 느끼며, 해당 집단의 기본적인 시민적 자유 행사에 대해 극단적인 결과를 상상할 가능성이 더 높다. 청년들에게 자신이 싫어하는 집단이 거주 도시에서 연설하는 것이 허용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물었을 때, 불관용적인 청년들은 관용적인 청년들에 비해 폭력과 혼란 상황을 상상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Wood et al., 1994). 알트마이어(Altemeyer, 1996)에

따르면 권위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증거를 주의 깊게 검토하거나, 비판적으로 생각하거나, 독립적인 결론에 도달하거나, 신념들과 결론 간의 일관성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불관용에 더 취약하다.

결과적으로 교육은 인지적 정교화를 증진시키고 권위주의적 성향을 낮춤으로써 정치적 관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때 인지적 정교화나 권위주의적 성향이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과정에서는 추론 과정의 복잡성, 냉정한 2차적 사고, 증거에 대한 검토와 같이 합리적인 사고와 관련된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로 이외에도 교육을 통해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존재한다.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는 교육이 어떠한 경로로 높은 정치적 관용의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정치적 관용 교육의 개선에 대해서도 많은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2) 비판적 사고와 정치적 관용의 관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함을 의미하는 관용은,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대상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부정적 행동을 의도적으로 중지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정치적 관용은 이러한 관용 개념을 공적 영역에 적용한 것으로, 자신이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대상에 대해서까지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정치적 관용에 대해서는 권리교육이나 가치교육을 통해 관용을 함양하려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접근과, 정치적 관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나 성향을 길러주려는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그런데 정치적 관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대응 없이는 권리교육이나 가치교육의 효과 역시 낮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관용 교육은 기존의 추상적 권리교육

이나 가치교육 일변도에서 벗어나 불관용을 초래하는 요인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 때 인지적인 요소에 의해 보다 잘 통제될 수 있는 정치적 관용의 특성과 불관용을 초래하는 요인을 없애거나 약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 사고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과에서는 비판적 사고를 활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치적 관용 교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비판적 사고가 정치적 관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정치적 관용과 비판적 사고에 대한 논의를 종합할 때, 비판적 사고와 정치적 관용은 다음과 같이 연결될 수 있다.

첫째, 비판적 사고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대한 극복에 기여함으로써 정치적 관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상대 집단에 대한 부정적 정서와 인지된 위협(perceived threat)을 가중시켜 정치적 관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최근에는 미디어를 통해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습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컨대, 가짜 뉴스와 같은 정보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형성하여 해당 집단에 대한 인지된 위협을 가중시킴으로써 불관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지적 능력이 필요하다. 셀즈닉과 스타인벅(Selznick & Steinberg, 1969) 역시 명백하게 비합리적인 반유대주의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그들이 불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까닭은 비합리적 신념을 거부할 수 있는 인지적 수단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런데 비판적 사고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판단을 내리고, 주장의 신뢰성을 판단하며,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특정 집단에 대해 형성된 부정적 정서나 편견,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객관적인 현실 인식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정치적 관용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비판적 사고는 타인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정치적 관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SNS와 같은 현대 사회의 미디어는 개인화된 알고리즘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신념이나 선호 가설만을 뒷받침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려는 확증편향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Nickerson, 1998). 그런데 정치적 관용은 이견에 노출되어 상대 의견에 대한 인지적 이해 수준이 높아질 경우에 높아질 수 있다(Mutz, 2002). 반대로 자신의 논증에 대한 근거가 많아질 경우 반대 집단에 대한 불관용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송현주·신승민·박승관, 2006). 최근의 미디어 환경은 사용자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을 제공하면서 확증편향을 높이는 쪽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지지하는 견해는 강화되고 반대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무관심과 몰이해가 초래되어 불관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확증편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사고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는 성향이 요구되며, 이는 비판적 사고가 갖는 반성적 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타인의 견해에 대한 몰이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사안을 객관적이고 분석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끈기와 경향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맥클로스키와 브릴(McClosky & Brill, 1983)은 관용적인 사람들은 더 많이 알고자 하며, 지식을 소중히 여기고, 현명함을 칭송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는 비판적 사고 성향의 특성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처럼 비판적 사고는 확증편향을 극복하고 반대 집단의 의견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정치적 관용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비판적 사고는 불관용을 초래하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극복을 통해 정치적 관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불관용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심리적 요인으로는 권위주의적 성향이나 교조주의(dogmatism), 광신주의(fanaticism)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은 강한 폐쇄성과 배타적인 확신, 이분법적 사고 등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비판적 사고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까지 반성적으로 사고하려는 사고이며, 자신의 이익에 반하더라도 진리를 추구하려는 성향과 사안을 다층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보려는 경향성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인지적 편협함을 극복하고 정치적 관용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넷째, 비판적 사고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관용이 달성될 수 있

다. 차경수·모경환(2018)에 따르면 주장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편견이나 감정,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 기타 특정한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 가려는 독선적 요소들을 가능한 배제해야 한다(차경수·모경환, 2018: 260). 즉 비판적 사고를 활용하여 타인의 의견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의견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가 요구되며, 이는 공적 영역에서의 의견 표현의 자유 보장을 뜻하는 정치적 관용과 관련된다. 또한 의식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근거를 추구하려는 비판적 사고의 특성은 다양한 의견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요컨대,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부산물로 관용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판적 사고와 정치적 관용 간의 이러한 관계는 비판적 사고의 하위 요소인 비판적 사고 기능과 비판적 사고 성향이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4. 선행 연구 검토

1) 정치적 관용 관련 연구

정치적 관용과 관련하여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국내 연구는 대개 교육활동의 효과로서 정치적 관용이 향상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정치적 관용은 그 자체로 종속변인으로 설정되기보다는 정치적 태도나 시민성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으로 연구된 경우가 많았다.

노현지·김겸미·박성혁(2013)의 연구는 학생 참여형 생활규정이 중학생의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정치적 관용은 정치적 태도를 구성하는 하위 요인으로서 '나와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것이다.'라는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나, 연구 결과 학생 참여형 생활규정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들과 일반적인 생활

규정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들 간에 정치적 관용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의 생활규정 제정 과정에 대한 참여 기회의 부여나 참여 경험이 정치적 관용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단순히 정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참여의 양을 늘린다고 하여 정치적 관용이 증진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김명정(2017)의 연구는 정치교육 이수 여부가 정치 관심도, 정치 효능감, 정치적 관용, 투표 참여 의사로 구성된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때 정치교육 이수 여부는 '법과 정치' 과목 이수 여부, 정치 관련 서적 노출 여부, 정치 관련 프로그램 참가 여부로 측정하였으며, 각각의 경우를 응답 결과에 따라 이수한 집단과 미이수 집단으로 나누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법과 정치 과목을 이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정치적 관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가정의 소득수준, 부모의 교육수준을 통제한 후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정치교육 이수 여부가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회귀모형이 유의하지 않게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생의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사회과 정치교육의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과 정치교육의 개선 필요성을 함께 시사한다.

이윤주(2010)의 연구는 노현지·김겸미·박성혁(2013)의 연구나 김명정(2017)의 연구와 달리 정치적 관용 그 자체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논쟁문제에 대한 이견 접촉여부와 접촉한 이견의 논증유형이 중·고등학생의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정치적 관용의 사전검사 점수, 성별, 나이, 학업성취도, 논쟁문제 수업을 경험한 횟수, 사회문제에 관한 대화 정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이견의 접촉 여부와 이견의 논증 유형은 정치적 관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자신과 동일한 의견보다는 이견을 접촉한 경우에, 그리고 보편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연역논증 형태의 이견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하는 귀납논증 형태의 이견을 접촉한 경우에 더 높은 정치적 관용을 보였다.

정치적 관용과 유사한 개념인 법적 관용성에 대한 국내 연구도 존재

한다. 황미애·이수진·박성혁(2013)은 정치적 관용의 개념을 타 집단 구성원에게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인정할지 여부의 문제로 한정한 것을 법적 관용성(legal tolerance)으로 보면서, 외국인에 대한 중고등학생의 법적 관용성이 성, 학교급, 종교 유무, 외국 체류 경험 유무, 외국인과의 직접 접촉 경험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증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대다수 미국인들이 이론적으로는 시민적 자유를 지지하나 그 구체적 적용은 거부한다는 맥클로스키와 브릴(McClosky & Brill, 1983)의 연구, 그리고 청소년들은 소수자의 권리를 구체적인 특정 상황에 적용하기보다 일반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패트릭, 레미와 터너(Patrick, Remy, & Turner, 1986)의 연구를 바탕으로 기본권의 내용을 추상적으로 제시한 경우와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 각각 외국인에 대한 법적관용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해당 연구의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종교의 자유를 제외한 모든 기본권에 대하여 기본권을 추상적으로 제시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보다 높은 정치적 관용 수준을 보였다. 또한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외국 체류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는 체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기본권의 내용 제시 방식과 무관하게 더 높은 법적 관용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기본권을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으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측정상의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증거주의에 대한 관용의 측정을 위해 추상적 차원에서는 '경찰이 외국인을 체포할 때에는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의 문항을, 구체적 차원에서는 '외국인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갈 우려가 있으므로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우선은 경찰이 체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후자의 문항의 경우 응답자가 해당 기본권을 단순히 자신과 관련된 구체적 상황 하에서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불필요한 편견이 가중된 조건적 상황 하에서 판단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측정 문항 하에서는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 추상적으로 제시한 경우보다 더 낮은 정치적 관용 수준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연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적 관용이 일반

적이고 추상적인 민주적 원칙에 대한 지지 정도로 측정되는 경우와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의 행동 원리로 측정되는 경우 관용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은 여전히 타당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정치적 관용의 구체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설리번, 피어슨과 마르쿠스(1982)의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종속변인을 측정하였다.

2) 비판적 사고 관련 연구

정문성·원순자·이바름(2017)의 연구는 비판적 사고가 초등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특정 집단이나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은폐, 축소, 과장, 왜곡 등의 그릇된 사고는 다문화수용성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비판적 사고가 소수자 집단에 대한 개방적인 다문화수용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비판적 사고 기능은 다문화수용성의 변량을 32% 가량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교육을 위한 별도의 내용과 방법을 강구하기보다 기존에 사회과에서 전통적으로 강조해 왔던 비판적 사고를 다문화교육의 주된 수업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효과적일 것이라 제언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확률 표집법을 활용하지 않았음에도 비판적 사고 이외에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를 적절히 투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과해석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위계적 회귀모델을 사용하여 비판적 사고 기능이 소수자 집단에 대한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 가설 및 연구 모형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비판적 사고와 정치적 관용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른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문제는 '고등학생의 비판적 사고는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독립변인인 비판적 사고를 비판적 사고 기능과 비판적 사고 성향으로 구분하고, 수도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를 측정하고 정치적 관용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연구 문제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주가설과 하위가설은 다음과 같다.

■ 주가설 1. 비판적 사고가 높을수록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 수준이 높을 것이다.

- 하위가설 1. 비판적 사고 기능이 높을수록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 수준이 높을 것이다.
- 하위가설 2.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을수록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 수준이 높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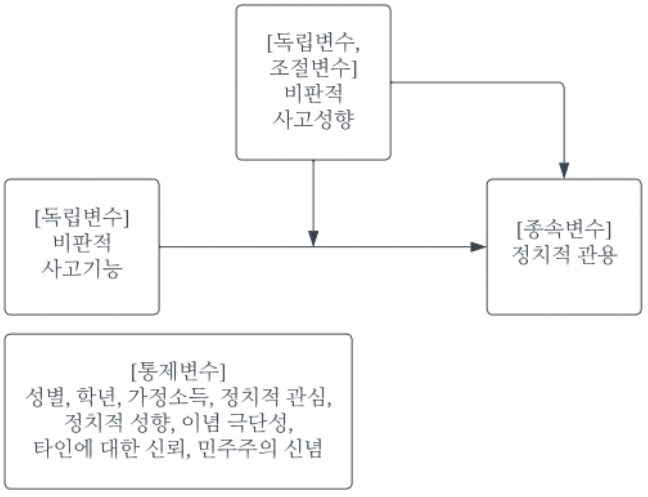
제시된 하위가설 1이 경험적으로 입증될 경우, 이론적 배경에 근거할 때 비판적 사고 기능이 정치적 관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비판적 사고는 인지적 요인인 비판적 사고 기능과 정의적 요인인 비판적 사고 성향이라는 두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비판적 사고 기능 및 사고 성향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양자가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Facione, Sanchez, & Facione, 1994)와 독립적으

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신경림·하주영·김건희, 2005)가 상존한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가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명히 하고, 정치적 관용 교육에서 비판적 사고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 기능이 정치적 관용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비판적 사고 성향이 조절변인으로 기능하는지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 기능 및 사고 성향이 고등학생의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 기능이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이 비판적 사고 성향에 의하여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하여서도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 문제로 '고등학생의 비판적 사고 기능이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제기할 수 있다. 두 번째 연구 문제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 주가설 2. 비판적 사고 기능이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은 비판적 사고 성향에 의해 달라질 것이다.

두 연구 가설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 모형은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관계 분석을 위한 연구 모형

2. 연구 변인 및 측정 도구

1) 종속 변인 : 정치적 관용

정치적 관용은 특정한 대상에 대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용납한다는 킹(1976)의 관용 개념을 공적 영역(public sphere)에서의 행위에 적용한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신이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개인 혹은 집단에게까지 자유로운 의견 표현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려는 의지'로 정의되었다. 정치적 관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스타우퍼(1955)의 측정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설리번, 피어슨과 마르쿠스(1979)가 고안하고 머츠(2002) 등 다수의 정치적 관용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어 온 정치적 관용 척도를 나은경(2007)의 연구를 참조하여 고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우리 사회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치적 극단화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서, 특히 정치 성향에 따른 정치 집단 간의 극단적 대립의 맥락에서 비판적 사고와 정치적 관용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정치적 관용을 측정함에 있어 선행 연구들에서와 같이 연구 참여자가 가장 좋아하지 않는(least-liked) 집단을 직접 설정하도록 하는 대신,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 성향이나 정치적 의견을 지닌 개인 혹은 집단'을 상상하며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문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치적 관용 척도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제시되었다. 6개의 문항 중 3, 4, 5번 문항에서는 높은 응답 점수가 높은 정치적 관용 수준을 의미하나, 1, 2, 6번 문항에서는 높은 응답 점수가 높은 정치적 불관용 수준을 의미하게 되어 1, 2, 6번의 3개 문항은 역코딩 처리하였다. 정치적 관용 척도의 구체적인 설문 구성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정치적 관용 척도의 설문 구성

번호	문항	Cronbach's α
*1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는 것이 금지되어야 한다.	0.770
*2	우리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3	우리 동네 혹은 내가 사는 지역에서 공개적으로 연설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4	우리 동네 혹은 내가 사는 지역에서 공공 집회를 여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5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6	정부에서 그들의 핸드폰을 감시해야 한다.	

(*은 역코딩된 문항을 나타냄.)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문항들이 서로 얼마나 동질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문항 내적 일치도 계수인 Cronbach's α를 기준으로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정치적 관용 척도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문항 내적 일치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77로 측정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활용된 척도가 정치적 관용을 측정하기에 충분히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척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독립 변인 : 비판적 사고 기능, 비판적 사고 성향

비판적 사고는 비판적 사고 기능 및 비판적 사고 성향으로 구분된다. 독립 변인의 측정을 위해 각각의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사용하되, 특히 사회과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를 두루 참고하여 측정 도구를 선정하였다.

① 비판적 사고 기능

비판적 사고 기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에니스, 밀만과 톰코(Ennis, Millman, & Tomko, 1986)에 의하여 개발된 후 다수의 비판적 사고 연구(신경숙, 2000; 채민정, 2008; 탁형수, 2015; 이동훈, 2017)에서 활용되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코넬 비판적 사고 기능 검사(Cornell Critical Thinking Test Level X, CCTT-X)를 활용하였다. CCTT-X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설계된 검사로서, 비판적 사고 기능을 귀납 추론(inductive inference), 연역(deduction), 관찰과 근거의 신뢰성 평가(credibility of sources and observation), 숨은 전제 파악(assumption identification)의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는 검사이다(조아미 외, 2009: 165).

선행 연구(신경숙, 2000; 채민정, 2008; 탁형수, 2015; 이동훈, 2017)에서는 CCTT-X 원 검사지의 71개 문항 중 귀납 추론, 연역, 관찰과 근거의 신뢰성 평가, 숨은 전제 파악의 각 영역별로 10문항씩 총 40문항을 채택하여 활용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문항 간에 일부 논리적 비약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약이 본 검사지의 비판적 사고 기능을 측정하는 도구로서의 타당도를 저해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CCTT-X의 원 검사지를 참조하여 답을 내는 데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1개 문항을 추가하였다. 이후, 문항 수의 유지를 위해 다른 문항에서 정확히 동일한 내용을 측정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1개 문항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선행 연구에서 활용된 설문지의 6, 7번 문항이 삭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활용된 설문지의 7, 9번 문항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 활용된 비판적 사고 기능 검사지 중 6~10번 문항이 CCTT-X 원 검사지의 18~22번 문항에 차례로 대응되게 함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이 논리적 비약 없이 비판적 사고 기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정답을 맞힌 경우 1점, 틀리거나 빈 칸으로 둔 경우 0점을 부여하여 총 40점 만점에 해당하는 점수로 비판적 사고 기능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변인이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40점 만점의 비판적 사고 기능 점수를 5점 척도로 환산한 값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비판적 사고 기능 점수에 대해서는 5점 척도로 환산한 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비판적 사고 기능 척도의 구체적인 설문 구성은 <표 Ⅲ-2>와 같다.

<표 Ⅲ-2> 비판적 사고 기능 척도의 설문 구성

하위 영역		문항 번호	Cronbach's α
1	귀납 추론	1~10	0.772
2	관찰과 근거의 신뢰성 평가	11~20	
3	연역	21~30	
4	숨은 전제 파악	31~40	

비판적 사고기능 척도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문항 내적 일치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772로 측정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활용된 척도가 비판적 사고기능을 측정하기에 충분히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척도임을 알 수 있다.

② 비판적 사고 성향

비판적 사고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척도의 타당화 연구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로서 김명숙(2006)의 연구에서 개발한 'K 비판적 사고 성향 검사지(KCTDT)'를 활용하였다. 김명숙(2006)의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 성향의 개념을 '비판적 사고의 동인으로 작용하는 정의적 특성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비판적 사고에 대한 가치관, 동기, 태도, 사고습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비판적 사고 성향의 개념과 측정 도구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하위 요인 25개를

추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 성향은 요인분석을 통해 '진실에 대한 가치 지향, 사고의 신중성, 비판적 사고에 대한 동기, 근거 확인/합리적 정확성 추구, 사고의 개방성, 사고의 공정성/독립성, 지적 호기심/끈기, 사고의 자기규제성'이라는 8개의 하위 요인으로 범주화되었다.

김명숙(2006)의 연구에서 개발된 예비검사 문항 중 본검사 문항으로 최종 선정된 문항은 73개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 기능 검사와의 병행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의 피로도가 높아질 것을 감안하여 연구 참여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검사 문항을 다음의 방식으로 반분하여 활용하였다.

먼저 김명숙(2006)의 연구에서 본검사 실시 결과 문항변별도가 .209로 매우 낮게 측정된 69번 문항은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외하였다. 나머지 72개의 문항의 경우, 전체 문항을 8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한 뒤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을 예비문항의 번호 순으로 나열하고 매 홀수 번째 문항을 선택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설문 문항은 총 39문항으로, '진실에 대한 가치 지향' 5문항, '사고의 신중성' 4문항, '비판적 사고에 대한 동기' 3문항, '근거 확인/합리적 정확성 추구' 7문항, '사고의 개방성' 7문항, '사고의 공정성/독립성' 5문항, '지적 호기심/끈기' 3문항, '사고의 자기규제성'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김명숙(2006)의 연구와 동일하게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약간 그렇지 않다(3점)', '약간 그렇다(4점)', '그렇다(5점)', '매우 그렇다(6점)'의 6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제시되었다. 다만 비판적 사고 기능에 대한 점수와 마찬가지로 비판적 사고 성향 점수 또한 결과 해석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하여 5점 척도로 환산한 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비판적 사고 성향의 각 하위 요인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는 <표 Ⅲ-3>과 같다.

<표 Ⅲ-3> 비판적 사고 성향 척도의 설문 구성

하위 요인		문항 번호	Cronbach's α
1	진실에 대한 가치 지향	*1, *2, *3, *4, *5	0.693
2	사고의 신중성	*6, *7, *8, *9	0.824
3	비판적 사고에 대한 동기	*10, 11, *12	0.502
4	근거 확인/정확성 추구	13, 14, 15, 16, 17, 18, 19	0.816
5	사고의 개방성	20, 21, 22, 23, 24, 25, 26	0.763
6	사고의 공정성/독립성	*27, *28, *29, *30, *31	0.792
7	지적 호기심/끈기	32, 33, 34	0.673
8	사고의 자기 규제성	35, 36, 37, 38, 39	0.732
전체			0.905

(*은 역코딩된 문항을 나타냄.)

비판적 사고성향 척도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문항 내적 일치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905로 측정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활용된 척도가 비판적 사고성향을 측정하기에 충분히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척도임을 알 수 있다.

3) 통제 변인

본 연구에서는 편의 표집을 활용한 설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의 과학적 엄밀성을 높이기 총 8개의 변수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힌 다수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성별, 학년, 가정의 소득수준, 정치적 관심, 정치적 성향, 이념적 극단성,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신뢰, 민주적 원칙에 대한 신념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각각에 대한 측정 문항을 설문지에 포함시켰다. 각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문 문항과 측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정의 소득수준 변인의 경우 200만원 이하부터 700만원 이상까지 백만 원 단위의 7수준 척도로 측정하였다. 정치적 관심 변인과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신뢰 변인의 경우 골레비오스카(2020)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귀하는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을 활용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정치적 성향 변인의 경우 진보-보수의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념적 극단성 변인의 경우에는 정치적 성향 변인에 대한 측정값을 1점과 7점은 4점, 2점과 6점은 3점, 3점과 5점은 2점, 4점은 1점으로 변환 코딩하여 회귀분석에 활용하였다. 민주적 원칙에 대한 신념 변인의 경우 에이버리 외(Avery et al., 1992)의 연구에서 활용된 2개 문항('표현의 자유는 그 사람이 어떠한 견해를 가졌는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인정되어야 한다.', '사회는 다수와 극단적으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참아줄 필요가 없다(역문항)')을 활용하였으며, 2개 문항의 평균점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본 연구는 중등 사회과교육과 관련하여 비판적 사고를 활용한 정치적 관용 교육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관용 교육 개선에 대한 함의를 얻으려는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표본을 획득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을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는 수도권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을 수도권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로 한정한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 사회과교육의 대상 가운데 중학생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중학생의 경우 인지발달 측면에서 비판적 사고를 활용한 관용 교육의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피아제(Piaget)의 인지발달단계 논의에 따르면, 형식적 조작기의 초반에 들어서는 중학생의

경우 추상적·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보이기 어렵다. 이에 고차사고력(higher-order thinking)에 해당하는 비판적 사고 기능 역시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상태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를 활용한 관용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지 여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충분히 클 것인지 여부가 상대적으로 불분명하다. 반면 형식적 조작기의 후반기에 들어서는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과 달리 관용과 관련하여 추상적·논리적인 사고 능력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며(길현주, 2007), 고차사고력 중 하나인 비판적 사고 기능 역시 충분한 발달 상태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관용 교육이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보그트(1997)의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연구 대상을 추상적·논리적 사고 능력이 충분히 발달한 고등학생으로 한정하였다. 연구의 외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고등학생 가운데 특수목적 고등학교 학생과 같이 특수한 집단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이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전국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비수도권 소재 고등학생을 연구 참여자에서 제외한 것은 거주 도시 크기에 따라 경험의 다양성에 차이가 발생하여 정치적 관용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Sullivan et al., 1994). 표집에 있어 무선할당을 하지 못한 한계를 고려하여, 별도로 거주지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경험의 다양성 수준이 유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도권 소재 고등학생으로 연구 참여자를 한정하고 비수도권 소재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보았다. 그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연구 수행이 가능하였던 서울 소재 3개교, 경기 소재 3개교의 총 6개교를 최종 표집 대상 학교로 선정하였다. 표집 대상이 된 6개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가운데 사회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 351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를 위해 사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문항 중 어색하거나 의미가 불분명한 표현에

대한 의견을 구하여 설문 내용을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수집을 위해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활용하였으며, 각 학교 교사의 협조를 구해 오프라인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의 배부와 수거는 2022년 5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 약 3주간 각 학교의 학사일정에 맞게 이루어졌다.

총 351명의 학생이 설문 조사에 응하였으나, 다섯 문항 이상 응답하지 않은 불성실한 응답이 12부 존재하였다. 또한 일부 학생은 정치적 관용 등의 주요 변수에 무응답하거나, 정치적 성향이나 가정의 소득수준 등 경우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문항에 대해 무응답으로 반응하였다. 이와 같이 주요 변수에 대한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00명의 응답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 연구 대상의 배경 변인 및 정치적 태도 변인에 대한 특성은 <표 Ⅲ-4>와 같다.

<표 Ⅲ-4> 최종 연구 대상의 특성

특성	항목	빈도	비율(%)
성별	남	92	30.7
	여	208	69.3
학년	1학년	48	16.0
	2학년	95	31.7
	3학년	157	52.3
가정의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	1.7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8	9.3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1	13.7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4	21.3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58	19.3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26	8.7
	700만원 이상	78	26.0
정치적 관심	전혀 관심이 없다	30	10.0
	대체로 관심이 없다	112	37.3
	보통이다	79	26.3
	대체로 관심이 있다	70	23.3
	매우 관심이 있다	9	3.0
정치적 성향	매우 진보	7	2.3
	진보	58	19.3
	약한 진보	64	21.3
	중도	103	34.3
	약한 보수	45	15.0
	보수	20	6.7
	매우 보수	3	1.0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신뢰	전혀 그렇지 않다	44	14.7
	대체로 그렇지 않다	140	46.7
	보통이다	89	29.7
	대체로 그렇다	27	9.0
	매우 그렇다	0	0.0
합계		300	100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 가설의 검증을 위해 Jamovi 2.2.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고등학생의 정치적 관용과 비판적 사고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으며, 회귀분석에 앞서 자료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 문항의 신뢰도 분석,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구체적인 기법 및 분석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인인 비판적 사고 기능과 비판적 사고 성향, 종속변인인 정치적 관용에 대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각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값을 확인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의 측정도구로는 주요 선행 연구에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활용되어 왔거나 척도 타당화 연구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를 활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척도를 반분하거나 설문의 표현을 연구 참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문항 내적 일치도에 대한 값을 별도로 제시하였다.

둘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기능, 비판적 사고 성향, 정치적 관용 및 통제변인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기술통계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대상인 수도권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 및 정치적 태도 변인에 대해 갖는 특징을 파악하였다.

셋째, 회귀분석에 앞서 회귀분석의 일반적 가정으로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선형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피어슨(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활용한 전체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독립변인 및 통제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팽창지수(VIF) 값을 확인하였다.

넷째, 다른 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인인 비판적 사고 기능과 비판적 사고 성향이 종속변인인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주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 = a + b_1X_1 + b_2X_2 + b_3X_3 + b_4X_4 + b_5X_5 + b_6X_6 + b_7X_7 + b_8X_8 + b_9X_9 + b_{10}X_{10} + e$$

Y : 정치적 관용
a : 상수
X1 : 비판적 사고기능
X2 : 비판적 사고성향
X3 : 성별 (0=남성, 1=여성)
X4 : 학년
X5 : 가정의 소득수준
X6 : 정치적 관심
X7 : 정치적 성향
X8 : 이념적 극단성
X9 :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신뢰
X10 : 민주적 원칙에 대한 신념
e : 오차항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 주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 기능과 비판적 사고 성향 간의 상호작용항(X_1X_2)이 포함된 다음의 회귀식을 활용하였다. 조절효과 분석 시에는 상호작용항에 포함된 변수인 비판적 사고 기능(X_1)과 비판적 사고 성향(X_2)에 대하여 평균중심화 변환(mean centering)된 값을 활용하였다.

$$Y = a + b_1X_1 + b_2X_2 + b_3X_3 + b_4X_4 + b_5X_5 + b_6X_6 + b_7X_7 + b_8X_8 + b_9X_9 + b_{10}X_{10} + b_{11}X_1X_2 + e$$

각 회귀식에 대한 분석 시에는 독립변수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는 일괄 투입법(enter method)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각 변수의 회귀계수 ($b_1 \sim b_{11}$)가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면 가설을 채택하였다.

Ⅳ.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비판적 사고와 정치적 관용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등학생의 비판적 사고가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해당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연구 문제로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비판적 사고 기능과 비판적 사고 성향으로 구성된 고등학생의 비판적 사고가 높을수록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주가설 1, 비판적 사고 기능이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은 비판적 사고 성향에 의해 달라질 것이라는 주가설 2를 설정하고 수도권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기술통계 분석, 문항의 신뢰도 분석, 변인 간 상관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초 통계 분석

1) 측정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최종 분석 대상이 된 수도권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300명의 측정 변인들에 대한 응답의 전반적인 분포와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도권 고등학생들이 비판적 사고 및 정치적 태도 변인에 대하여 갖는 특성을 함께 기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비판적 사고 기능 및 비판적 사고 성향

독립변수인 비판적 사고에 대한 수도권 고등학생들의 응답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수도권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300명의 비판적 사고 기능 및 비판적 사고 성향에 대한 기술통계 값은 다음 <표 Ⅳ-1>와 같다.

<표 Ⅳ-1> 고등학생의 비판적 사고의 특성(N=300)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비판적 사고 기능		3.14	0.715	1.25	4.75
비판적 사고 성향		3.46	0.500	2.37	5.00
	진실에 대한 가치 지향	3.59	0.736	1.33	5.00
	사고의 신중성	3.32	0.981	1.04	5.00
	비판적 사고에 대한 동기	3.07	0.817	0.83	5.00
	근거 확인/정확성 추구	3.61	0.657	1.19	5.00
	사고의 개방성	4.08	0.523	1.90	5.00
	사고의 공정성/독립성	3.47	0.788	1.67	5.00
	지적 호기심/끈기	3.11	0.894	0.83	5.00
	사고의 자기 규제성	3.42	0.696	1.33	5.00

수도권 고등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기능 변인의 평균은 3.14(SD=.715), 비판적 사고 성향 변인의 평균은 3.46(SD=.500)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하위 요인별 평균을 구한 결과 사고의 개방성(4.08), 근거 확인 및 정확성 추구(3.61), 진실에 대한 가치 지향(3.59), 사고의 공정성 및 독립성(3.47) 요인이 순서대로 비판적 사고 성향의 전체 평균 3.46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반면 사고의 자기 규제성(3.42), 사고의 신중성(3.32), 지적 호기심 및 끈기(3.11), 비판적 사고에 대한 동기(3.07) 요인의 경우 순서대로 전체 평균보다 낮은 값을 보여, 다른 하위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2) 정치적 관용

종속변수인 정치적 관용에 대한 수도권 고등학생들의 응답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수도권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300명의 정치적 관용에 대한 기술통계 값은 <표 Ⅳ-2>와 같다.

<표 Ⅳ-2> 고등학생의 정치적 관용의 특성(N=300)

변인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정치적 관용		3.75	3.83	0.73	1.17	5.00
	*문항 1	3.81	4.00	1.10	1.00	5.00
	*문항 2	4.26	5.00	0.92	1.00	5.00
	문항 3	3.50	4.00	1.10	1.00	5.00
	문항 4	3.41	3.00	1.09	1.00	5.00
	문항 5	3.17	3.00	1.21	1.00	5.00
	*문항 6	4.35	5.00	0.99	1.00	5.00

(*은 역코딩된 문항을 나타냄.)

수도권 고등학생들은 5점 척도로 측정되는 정치적 관용에서 평균적으로 3.75점을 얻어(SD=0.731),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 성향을 지닌 집단에 대해 비교적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문항별로 비교할 경우,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의 유형에 따라 학생들의 정치적 관용 수준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였다.

학생들은 '정부에서 그들의 핸드폰을 감시해야 한다.'(4.35), '우리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한다.'(4.26),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는 것이 금지되어야 한다.'(3.81)의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으며, '우리 동네 혹은 내가 사는 지역에서 공개적으로 연설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3.50), '우리 동네 혹은 내가 사는 지역

에서 공공 집회를 여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3.41),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3.17)의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에 비해 순차적으로 덜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고등학생들은 핸드폰 감시와 같이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경우나 특정 구성원을 우리 사회에서 전면적으로 배척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반대 집단이라 하더라도 시민적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공개적인 연설이나 집회, 혹은 공적인 공간인 학교에서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관용적인 태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장 높은 관용 수준이 나타난 문항 6(정부에서 그들의 핸드폰을 감시해야 한다)과 가장 낮은 관용 수준이 나타난 문항 5(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간의 평균 차이는 약 1.2점으로, 정치적 관용 척도 전체의 표준편차가 0.73임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의 관용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3) 기타 정치적 태도 관련 변인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관용이라는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정치적 관심, 정치적 성향, 이념적 극단성, 민주적 원칙에 대한 신념,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신뢰 변인을 설정하고, 수도권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를 측정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수도권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300명의 정치적 태도 관련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값은 <표 Ⅳ-3>과 같다.

<표 Ⅳ-3> 고등학생의 정치적 태도 관련 변인의 특성(N=300)

변인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정치적 관심		2.72	3.00	1.03	1	5
정치적 성향		3.64	4.00	1.26	1	7
	남학생	4.02	4.00	1.26	1	7
	여학생	3.48	4.00	1.22	1	7
이념적 극단성		0.98	1.00	0.86	0	3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신뢰		2.33	2.00	0.84	1	4
민주적 원칙에 대한 신념		3.40	3.50	0.77	1	5

첫째, 정치적 관심 변인의 평균은 2.72로(SD=1.03), 고등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낮은 수준의 정치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빈도 분석 결과 고등학생들은 정치적 관심 문항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다(10.0%), 대체로 관심이 없다(37.3%), 보통이다(26.3%), 대체로 관심이 있다(23.3%), 매우 관심이 있다(3.0%)의 응답 분포를 보여,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응답자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10%임에 반해, 매우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3%에 그쳐 정치적 관심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분포가 정적 편포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정치적 성향 변인의 평균은 3.64로(SD=1.26), 고등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진보 성향에 약간 치우친 중도적 정치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는 본 연구의 최종 응답 학생이 남학생 약 30%, 여학생 약 70%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성별을 기준으로 정치적 성향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값을 나누어 볼 경우, 남학생의 정치적 성향 평균은 4.02로 중도에 가까운 성향을 보였으며(SD=1.26), 여학생의 정치적 성향 평균은 3.48(SD=1.22)로 상대적으로 진

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 분석 결과 고등학생들은 정치적 성향 문항에 대하여 매우 진보(2.3%), 진보(19.3%), 약한 진보(21.3%), 중도(34.3%), 약한 보수(15.0%), 보수(6.7%), 매우 보수(1.0%)의 응답 분포를 보여, 고등학생들의 정치적 성향 분포가 정적 편포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치적 성향 변인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념적 극단성 변인의 경우 평균은 0.98로 나타났다(SD=0.86).

셋째,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신뢰 변인의 평균은 2.33으로(SD=0.84), 고등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낮은 수준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 분석 결과 고등학생들은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신뢰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4.7%), 대체로 그렇지 않다(46.7%), 보통이다(29.7%), 대체로 그렇다(9.0%), 매우 그렇다(0.0%)의 응답 분포를 보였다.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구성원들이 매우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아무도 없었으며,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을 대체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을 보였다.

넷째, 민주적 원칙에 대한 신념의 평균은 3.40(SD=0.77)으로, 고등학생들은 추상적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와 같은 시민적 권리를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정도는 비교적 높지 않았다.

2) 측정 변인들에 대한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회귀분석의 일반적 가정으로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선형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진단하기 위하여 피어슨(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활용한 전체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Ⅳ-4>와 같다.

<표 Ⅳ-4> 측정 변인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	-									
2	.206***	-								
3	.206***	.323***	-							
4	-.018	.231***	.094	-						
5	-.049	.160**	.041	.170**	-					
6	.003	.016	-.007	-.130*	-.132*	-				
7	.101	.083	.336***	-.041	.033	-.102	-			
8	-.029	-.087	-.133*	-.200***	-.047	.083	-.047	-		
9	.058	.022	.164**	.071	-.069	.097	.253***	-.315***	-	
10	.208***	-.080	-.141*	-.110	.070	.059	.030	.046	.008	-
11	.228***	-.015	0.077	-.107	.053	.116	.103	-.050	.058	.185**

*p<.05, **p<. 01, ***p<.001

(1: 정치적 관용, 2: 비판적 사고기능, 3: 비판적 사고성향, 4: 성별(여=1), 5: 학년, 6: 가정의 소득수준, 7: 정치적 관심, 8: 정치적 성향, 9: 이념적 극단성, 10: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신뢰, 11: 민주적 원칙에 대한 신념)

먼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선형성 여부를 살펴보면 종속변인인 정치적 관용과 독립변인인 비판적 사고 기능 및 비판적 사고 성향 간의 관계는 선형 관계로 나타나 다중회귀분석의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r=.206, r=.206, p<.001).

다음으로 통제 변인을 포함한 독립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의 크기는 최대 .336으로 나타나, 다중회귀분석 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의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도 각 변인의 분산팽창인자(VIF)가 모두 1.08에서 1.31 사이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서 제시된 상관관계 중 주목할 만한 몇몇 수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판적 사고 기능과 비판적 사고 성향 간(r=.323), 둘째, 비판적 사고 성향과 정치적 관심 간(r=.336), 셋째, 성별과 정치적 성향 간(r=-.200), 넷째, 정치적 관심과 이념적 극단성 간(r=.253), 다섯째, 정치적 성향과 이념적 극단성 간(r=-.315) 상관계수 0.2 이상이면서 $p<.001$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 기능과 비판적 사고 성향 간의 정(+)의 상관(r=.323)은 비판적 사고를 구성하고 있는 두 요소가 어느 정도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과 정치적 성향 간의 부(-)의 상관(r=-.200)은 최근 젊은 층에서 남녀갈등이 논쟁적 이슈가 되고 성별을 중심으로 정치적 이념 성향이 분명하게 갈리는 최근의 정치 현실을 보여준다. 정치적 관심과 이념적 극단성 간의 정(+)의 상관(r=.253)은 정치적 극단화를 부추기는 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해 정치적 관심이 오히려 이념적 극단성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미디어의 악영향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없이 정치적 관심을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정치교육이 오히려 극단화에 기여하게 될 수 있다. 이는 정치교육이 정치적 관심을 촉구하기에 앞서 불관용을 초래하는 요인에 대항하는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정치적 성향과 이념적 극단성 간의 부(-)의 상관(r=-.315)은 학생들 중 진보 성향을 지닌 학생들이 보수 성향을 지닌 학생들에 비하여 정치 이념의 스펙트럼 상에서 상대적으로 극단에 치우쳐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학생들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한 상세한 분석이 요구된다.

2. 정치적 관용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 비판적 사고가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비판적 사고 기능과 비판적 사고 성향이 고등학생의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판적 사고가 높을수록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 수준이 높을 것이다.'라는 주가설 1 및 그 하위가설들을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의 인용 여부를 검증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모든 독립 및 통제변인들을 일괄 투입 방식(enter method)으로 투입하여 정치적 관용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Ⅳ-5>와 같다.

<표 Ⅳ-5> 정치적 관용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회귀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β	t	유의확률
상수	1.705	0.409		4.174	<.001***
사고기능	0.197	0.060	0.193	3.313	0.001**
사고성향	0.249	0.089	0.170	2.803	0.005**
성별(여=1)	-0.023	0.091	-0.014	-0.252	0.801
학년	-0.125	0.054	-0.127	-2.291	0.023*
가정소득	-0.018	0.024	-0.042	-0.755	0.451
정치관심	0.029	0.042	0.040	0.685	0.494
정치성향	-0.020	0.034	-0.034	-0.597	0.551
이념극단성	-0.108	0.050	-0.128	-2.173	0.031*
타인신뢰	0.196	0.048	0.224	4.046	<.001***
민주적신념	0.178	0.052	0.188	3.401	<.001***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0.428	0.183	0.155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모형	26.266	10	2.626	6.48	<.001***
잔차	130.446	289	0.451		
합계	156.712	299			

*p<.05, **p<.01, ***p<.001

본 회귀 모형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통계량인 분산팽창인자(VIF)가 모두 1.08에서 1.31 사이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회귀분석의 가정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오차의 자기상관성을 검정하는 더빈-왓슨 검정(Durbin-Watson test for autocorrelation)을 실시한 결과, 더빈-왓슨 통계량은 1.90, p=.302로 나타나 오차항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독립적임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회귀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은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의 18.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정된 R-Squared의 값은 0.155로, 이에 따르면 회귀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은 정치적 관용의 15.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정된 R-Squared의 값이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은 편의 표집을 활용한 설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비교적 많은 수의 통제변인을 투입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회귀분석의 검증 결과,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은 비판적 사고 기능(B=.197, p=.001), 비판적 사고 성향(B=.249, p=.005), 학년(B=-.125, p=.023), 이념적 극단성(B=-.108, p=0.031),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신뢰(B=.196, p<.001), 민주적 원칙에 대한 신념(B=.178, p<.001)의 6개 변인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 기능과 비판적 사고 성향이 모두 정치적 관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주가설 1과 그 하위가설 1, 2를 모두 채택하였다.

비표준화 회귀계수 B의 값으로 볼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5점 척도로 환산된 비판적 사고 기능 점수가 1점 높을수록 정치적 관용은

0.197점 높게 나타나며, 5점 척도로 환산한 비판적 사고 성향 점수가 1점 높을수록 정치적 관용은 0.249점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이 1점 높을수록 정치적 관용은 0.196점 높게 나타나며, 민주적 원칙에 대한 신념이 1점 높을수록 정치적 관용은 약 0.178점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학년과 이념적 극단성은 정치적 관용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한 학년 높을수록 정치적 관용은 약 0.125점 낮게 나타났으며, 0부터 3까지의 척도로 측정된 이념적 극단성이 1단위 높을수록 정치적 관용은 0.108점 낮게 나타났다.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6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신뢰(β=.224)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비판적 사고 기능(β=.193), 민주적 원칙에 대한 신념(β=.188), 비판적 사고 성향(β=.170), 이념적 극단성(β=-.128), 학년(β=-.127)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한편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에 성별(B=-.023, p=.801), 가정의 소득수준(B=-.018, p=.451), 정치적 관심(B=.029, p=.494), 정치적 성향(B=-.020, p=.551) 변인의 경우, 해당 변인들이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결과로는 해당 변인들이 정치적 관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 비판적 사고기능과 정치적 관용 간 관계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조절효과 분석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는 고등학생의 비판적 사고 기능이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이 해당 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 수준에 의해 조절되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판적 사고 기능이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은 비판적 사고 성향에 의해 달라질 것이다.'라는 주가설 2를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의 인용 여

부를 검증하였다. 조절효과 분석 시에는 상호작용항에 포함된 변수인 비판적 사고 기능(X_1)과 비판적 사고 성향(X_2)에 대하여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한 값을 활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인들을 일괄 투입 방식(enter method)으로 투입하여 정치적 관용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Ⅳ-6>과 같다.

<표 Ⅳ-6>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정치적 관용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회귀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β	t	유의확률
상수	3.180	0.306		10.407	<.001***
사고기능	0.200	0.060	0.196	3.368	<.001***
사고성향	0.253	0.089	0.173	2.845	0.005**
성별(여=1)	-0.013	0.091	-0.008	-0.143	0.886
학년	-0.125	0.054	-0.127	-2.289	0.023*
가정소득	-0.019	0.024	-0.045	-0.816	0.415
정치관심	0.027	0.042	0.038	0.648	0.517
정치성향	-0.019	0.033	-0.032	-0.558	0.577
이념극단성	-0.114	0.050	-0.133	-2.267	0.024*
타인신뢰	0.193	0.049	0.220	3.988	<.001***
민주적신념	0.179	0.052	0.189	3.412	<.001***
사고기능* 사고성향	0.129	0.112	0.063	1.156	0.249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0.432	0.187	0.156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모형	27.101	11	2.464	6.02	<.001***
잔차	129.844	288	0.451		
합계	156.945	299			

*p<.05, **p<.01, ***p<.001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회귀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은 정치적 반대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의 18.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R-Squared의 값은 0.156으로, 이에 따르면 회귀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은

정치적 관용의 15.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투입한 비판적 사고 기능과 비판적 사고 성향의 상호작용항이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129, p=.249). 이에 비판적 사고 기능이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은 비판적 사고 성향에 의해 조절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비판적 사고 기능이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이 비판적 사고 성향에 의해 달라질 것이라는 주가설 2는 채택되지 않았다. 그 외 변인들의 회귀계수나 유의확률을 확인한 결과, 상호작용항의 투입으로 인해 특별히 영향을 받은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정치적 관용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인인 비판적 사고를 비판적 사고 기능과 비판적 사고 성향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주가설 1. 비판적 사고가 높을수록 정치적으로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에 대한 정치적 관용 수준이 높을 것이다.

- 하위가설 1. 비판적 사고기능이 높을수록 정치적으로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에 대한 정치적 관용 수준이 높을 것이다.
- 하위가설 2.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정치적으로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에 대한 정치적 관용 수준이 높을 것이다.

■ 주가설 2. 비판적 사고기능이 정치적으로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에 대한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효과는 비판적 사고성향에 의해 달라질 것이다.

연구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35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다섯 문항 이상 응답하지 않은 불성실한 응답과 주요 변수에 대한 응답을 누락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측정된 300명의 응답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 기능과 비판적 사고 성향을 독립 변인으로, 정치적 관용을 종속 변인으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판적 사고 기능과 비판적 사고 성향은 모두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비판적 사고 기능이 높을수록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을수록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 사고 기능과 비판적 사고 성향이 인지적 정교화, 권위주의적 성향, 상대 의견에 대한 이해 증진 등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다양한 변인과의 관련성 속에서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Bobo & Likari, 1989; McClosky & Brill, 1983; Golebiowska, 2020; Mutz. 2002). 또한 비판적 사고를 통해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불관용을 초래하는 인지된 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Sullivan, Piereson, & Marcus, 1982).

둘째, 비판적 사고 기능이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효과는 비판적 사고 성향에 의해 조절되지 않았다. 비판적 사고 성향의 수준과 상관없이 비판적 사고 기능은 정치적 관용에 일관되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서는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 기능과 비판적 사고 성향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기보다 각각 별개의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판적 사고 기능과 비판적 사고 성향 간의 상관계수 역시 .323으로 나타나, 비판적 사고 기능과 비판적 사고 성향 간 .30~.40의 상관계수를 기록한 국내외의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김명숙, 2006). 그러나 다수의 선행 연구는 비판적 사고 기능과 비판적 사고 성향이 개념적·이론적 차원에서 볼 때 서로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여러 고차사고력 가운데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성향이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혹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본 연구에서 활용한 비판적 사고 기능 검사(CCTT-X)가 영역 특수적(domain-specific) 기능이 아닌 영역 일반적(domain-general) 기능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측정한 비판적 사고 기능은 일반적인 사고 기능이기 때

문에 정치적 영역이라는 구체적인 영역에서 작용하는 태도 변인인 정치적 관용과의 관계에서 비판적 사고 성향이 그 효과를 조절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통제변인인 성별, 학년, 가정의 소득수준, 정치적 관심, 정치적 성향, 이념적 극단성,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신뢰, 민주적 원칙에 대한 신념 가운데 타인에 대한 신뢰, 민주적 원칙에 대한 신념, 이념적 극단성이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쳤다. 즉, 사회 내의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 수준이 높았다. 또한, 정치적 자유에 관한 민주적 원칙에 대한 신념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 수준이 높았다. 반면, 이념적 극단성 수준은 높을수록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 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 관용과 관련된 다수의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학년의 경우 정치적 관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치적 관용 수준이 낮아진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만,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통제하고도 여전히 학년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한 규명이 요구된다. 성별, 가정의 소득 수준, 정치적 관심, 정치적 성향의 경우 정치적 관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과의 관용 교육 및 정치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교육적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첫째, 정치적 관용 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비판적 사고 기능과 비판적 사고 성향을 함양하는 교육을 통해 불관용을 초래하는 요인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판적 사고가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비판적 사고를 활용한 정치적 관용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비판적 사고 기능이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은 민주적 원칙에 대한 신념이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보다도 컸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여기에 비판적 사고 성향의 영향까지 포함할 경우, 비판적 사고를 활용한 교육의 효과는 추상적인 권리교육과 비교하여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정치교육 측면에서 비정치적 요소를 활용한 정치교육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행 고등학교 정치교육은 교과서만 보더라도 정치 현실 및 법적 현실과 관련된 빼곡한 지식으로 가득하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정치에 대하여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흔하며, 정치와 관련된 요소를 따분하게 느끼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나 법의 요소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더라도, 정치 영역을 비롯하여 모든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사고인 비판적 사고를 통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중요한 정치적 태도인 정치적 관용을 함양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사회과교육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비판적 사고가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기능교육을 통한 가치태도 교육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우리 교육의 현실에서 가치교육은 자칫하면 교조주의적으로 흘러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허한 외침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수의 선행 연구는 민주적인 가치나 태도가 직접적인 가치교육이 아닌 간접적 방식으로 습득될 때 오히려 그 효과가 더 높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경험적 측면에서 그러한 선행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가치태도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가치를 직접 가르쳐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비판적 사고와 같은 기능의 함양을 통해 민주적인 가치와 태도를 함양케 하는 접근법이 향후 더 많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교육적 함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가 관용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보다는 불관용의 원인에 대한 극복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가 정치적 관용의 함양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헌법적 원칙이나 시민적 자유와 권리에 대한 교육 없이는 관용의 증진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정치적 관용 교육에 있어서는 권리교육과 비판적 사고 교육이 적절하게 병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정치적 관용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비판적 사고 기능과 비판적 사고 성향을 고루 함양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관용에 대한 비판적 사고 기능과 비판적 사고 성향의 상호작용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비판적 사고 기능과 비판적 사고 성향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본 연구의 결과는 사고 기능과 사고 성향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비판적 사고 기능과 비판적 사고 성향이 정치적 관용에 각각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비판적 사고 기능 없이 비판적 사고 성향만 기르거나 비판적 사고 성향 없이 비판적 사고 기능만 기르는 교육은 반쪽짜리 교육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반대로 생각하면, 사고 기능이 조금 낮더라도 높은 사고 성향을 가질 수 있고, 사고 성향이 조금 낮더라도 높은 사고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이 되었든 비판적 사고의 함양에 있어 비판적 사고 기능과 사고 성향을 두루 함양시키려는 노력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정치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고등학생의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변인들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치 교육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에 대한 각계각층의 연구는 정치적 관용에 대한 교육적 접근에도 풍부한 함의를 제공해 왔다. 본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다양하게 검증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 태도 변인 간의 상관관계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향후 고등학교 정치교육의 개선에 있어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정치적 관심이 정치적 관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는 학생들을 관용적인 시민으로 길러내는 데 있어 단순히 정치적 관심을 촉구하는 방식으로는 불충분할 것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고등학교 정치교육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는 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제언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와 정치적 관용의 관계를 분석하고 비판적 사고가 정치적 관용에 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비판적 사고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비판적 사고 검사지인 CCTT-X는 비판적 사고 기능 가운데 일부만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비판적 사고 기능 검사 도구 가운데 국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검사 도구는 그리 많지 않아, 향후 비판적 사고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 비판적 사고 기능에 대한 검사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 효과적인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가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었으므로, 앞으로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비판적 사고를 잘 함양하도록 가르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남는다. 특히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가 정치적 관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고등학생에게 적합한 비판적 사고 교육 방안이 연구되고 검증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등학생의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변인들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치 교육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의 교육적 함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확인된 다수의 정치교육 관련 변인의 관계가 고등학교 정치교육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가상준(2015). 한국사회 정치관용에 대한 연구: 낮은 관용, 깊은 갈등. 한국정당학회보, 14(1), 129-155.

가상준·윤종빈·유성진(2010). 한국사회 정치관용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OUGHTOPIA, 25(3), 273-298.

교육부(2018).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8-162호 [별책7].

권희경·김주아·박경호·안해정·최인희·김명섭(2020). 2020 KEDI 학생역량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 RR 2020-29, 1-332.

김영정(2004). 비판적 사고와 공학교육. 공학교육, 11(2), 94-101.

김명숙(2006).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의 개발 및 양호도 검증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9(1), 89-117.

김명정(2009). 청소년 참여가 시민성 함양에 미치는 영향: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2017). 정치교육이 고등학생의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 부산 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OUGHTOPIA, 32(1), 101-123.

김용환(1997). 관용과 열린사회. 서울: 철학과현실사.

김희봉(2002). 열린 사회를 위한 관용교육. 열린교육연구, 10(2), 19-41.

길현주(2007). 중, 고등학생의 관용성 분석과 관용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39(2), 23-61.

나은경(2007). 다양성에 기초한 민주주의: 온라인 사회연결망 이질성 인식 수준에 따른, 다양성과 민주적 시민태도의 다면적 관계. 한국언론학보, 51(6), 163-189.

노현지·김겸미·박성혁(2013).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이 중학생의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서울 K 중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8(2), 87-120.

박상준(2006). 비판적 사고력의 신장을 위한 초등 사회과의 질문법에 관한 연구. 사회과교육, 45(1), 121-152.

신경림·하주영·김건희(2005).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비판적 사고 기술에 관한 종적 연구.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2), 382-389.

신경숙(2000). 교과통합 사고교육모형에 의한 비판적 사고력 증진 수업 개발 및 적용.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연주(2011). 공공쟁점 토론학습에서 학습자 참여 양태에 따른 비판적 사고 기능과 성향 비교 연구. 사회과교육, 50(2), 1-21.

옥일남(2012). 미국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비판적 사고의 이해. 시민교육연구, 44(3), 131-172.

이광성(2015). 비판적 사고 기능을 활용한 수업이 고급사고력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시민교육연구, 47(3), 123-145.

이동훈(2017).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사회과 수업이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윤주(2010). 이견(異見)의 논증 유형에 따른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 효과 연구: 정치적 관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문성·원순자·이바름(2017). 비판적 사고가 초등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시민교육연구, 49(4), 197-217.

송현주·신승민·박승관(2006).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이견 읽기와 논변구성과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0(5), 160-183.

조아미·김정희·설현수·정재천(2009).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 방안 연구 Ⅱ: 사고력 영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3-12.

조영제(1997). 다원주의 사회의 관용교육-자율성에 근거한 관용교육에 대한 비판. *시민교육연구*, 25, 305-325.

_____(1998). 다원주의 사회의 기본 덕목으로서의 관용과 그 시민교육적 함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차경수·모경환(2018). 사회과교육. 서울: 동문사.

채민정(2008). 고등학교 1학년 미술과 수업에서 발문법이 비판적 사고력

에 미치는 효과: 인쇄매체 패러디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윤정·이종혁(2012). 인터넷 토론에서 이견 (異見) 노출이 정치적 관용에 이르는 경로 분석: 의견 조정과 의견 공고화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6(2), 301-330.

탁형수(2015). A-STEAM 기반 미술비평 학습이 초등학생의 비판적 사고와 융합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황미애·이수진·박성혁(2013). 외국인에 대한 중등학생의 법적관용성-다문화 법교육에의 함의. 시민교육연구, 45(1), 171-191.

황정숙(2009). 차이를 긍정하는 사회과 정치교육 방안 연구: 관용을 넘어 긍정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경철·윤병희·임선하·양미경·한순미·이혜원·김홍원(1991). 사고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V)(RR91-18). [KEDI] 연구보고서, 1-281.

Allport, G. W., Clark, K., & Pettigrew, T.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Altemeyer, R. A., & Altemeyer, B. (1996). The authoritarian specter. Harvard University Press.

Avery, P. G. (1988). Political tolerance among adolescents. Theory &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16(3), 183-201.

Avery, P. G., Bird, K., Johnstone, S., Sullivan, J. L., & Thalhammer, K. (1992). Exploring political tolerance with adolescents. Theory &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20(4), 386-420.

Avery, P. G. (2002). Political socialization, tolerance, and sexual identity. Theory &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30(2), 190-197.

Beyer, B. K. (1985). Critical thinking: What is it. Social education, 49(4), 270-276.

Bobo, L., & Licari, F. C. (1989). Education and political tolerance: Testing the effects of cognitive sophistication and target group affect. Public Opinion Quarterly, 53(3), 285-308.

Dewey, J. (1910). How we think. Chicago, The Boston D.C.: Health.

Ennis, R. H. (1962). A concept of critical thinking. Harvard educational review, 32(1), 83-111.

Ennis, R. H. (1987). A taxonomy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andabilities. In Baron, J. B. & Sternberg, R. J.(Eds.), Teaching Thinking Skills: Theory and Practice(pp. 9-26). New York: W.H. Freeman and Company.

Ennis, R. H., Millman, J., & Tomko, T. (1986). Cornell critical thinking tests level X & Z manual. CA: Critical Thinking Books & Software.

Facione, A. (1990). Critical thinking: A statement of expert consensus for purpose of educational assessment and instruction. American philosophical association delphi report. ERIC Doc. No.: ED 315423.

Facione, N. C., Facione, P. A., & Sanchez, C. A. (1994).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s a measure of competent clinical judgment: The development of the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ventory.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3(8), 345-350.

Gibson, J. L. (1992).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intolerance: Cultural conformity and political freedom.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2), 338-356.

_____. (1998). Putting up with fellow Russians: An analysis of political tolerance in the fledgling Russian democracy.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1(1), 37-68.

Gibson, J. L., & Bingham, R. D. (1982). On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political tolera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6(3), 603-620.

Glazer, E. (1941). An Experiment in the Development of Critical Thinking. Advanced School of Education at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5.

Golebiowska, E. A. (2020). The mechanisms behind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political tolerance. Politics, Groups, and Identities, 8(5), 937-956.

King, P. (1976). Toleration. George Allen and Unwin. London.

Marcus, G. E., Theiss-Morse, E., Sullivan, J. L., & Wood, S. L. (1995). With malice toward some: How people make civil liberties judgme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rtinson, D. L. (2005). Building a tolerance for disagreement an important goal in social studies instruction. The Clearing House: A Journal of Educational Strategies, Issues and Ideas, 78(3), 118-122.

McClosky, H. (1964). Consensus and Ideology in American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8(2), 361-382.

McClosky, H., & Brill, A. (1983). The dimensions of tolerance: What Americans believe about civil liberties. Russell Sage Foundation.

McPeck, J. E. (1981). Critical Thinking and Education. N.Y.: St. Martin's Press. 박영환·김공하 역(2003). 비판적 사고와 교육. 배영사.

Mendus, S. (1989). Toleration and the Limits of Liberalism. London: Macmillan.

Mutz, D. C. (2002). Cross-cutting social networks: Testing democratic theory in practi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6(1), 111-126.

Nickerson, R. S. (1998). Confirmation bias: A ubiquitous phenomenon in many guis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2), 175-220.

Nie, N. H., Junn, J., & Stehlik-Barry, K. (1996). Education and democratic citizenship in Americ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Owen, D., & Dennis, J. (1987). Preadult development of political tolerance. Political Psychology, 547-561.

Patrick, J. J., Remy, R. C., & Turner, M. J.(1986). Education on the constitution in secondary schools: Teaching strategies and materials for the bicentennial and beyond, Social Studies Development Center Indiana University.

Sears, A., & Parsons, J. (1991). Towards critical thinking as an ethic. Theory &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19(1), 45-68.

Selznick, G. J., & Steinberg, S. (1969). The tenacity of prejudice: Anti-Semitism in contemporary America.

Sniderman, P. M. (1975). Personality and democratic politics. Univ of California Press.

Stouffer, S. A. (1955). Communism, conformity, and civil liberties: A cross-section of the nation speaks its mind. Transaction Publishers.

Sullivan, J. L., Piereson, J., & Marcus, G. E. (1979). An alternative conceptualization of political tolerance: Illusory increases 1950s - 1970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3(3), 781-794.

Sullivan, J. L., Marcus, G. E., Feldman, S., & Piereson, J. E. (1981). The sources of political tolerance: A multivariate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5(1), 92-106.

Sullivan, John L., James E. Piereson, & George E. Marcus. (1982). Political Tolerance and American Democra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ullivan, J. L., Avery, P. G., Thalhammer, K., Wood, S., & Bird, K. (1994). Education and Political Tolerance in the United States: The Mediating Role of Cognitive Sophistication, Personality, and Democratic Norms. The Review of Education/Pedagogy/Cultural Studies, 16(3-4), 315-324.

Sunstein, C. R. (2005). Why societies need dissent (Vol. 9). Harvard University Press. 박지우·송호창(공역)(2015). 왜 사회에는 이견이 필요한가. 서울: 후마니타스.

Vogt, P. W. (1997). Tolerance & Education: learning to live with diversity and difference. London: Sage publication.

Wood, S., Thalhammer, K., Sullivan, J. L., Bird, K., Avery, P. G., & Klein, K. (1994). Tolerance for diversity of beliefs: Learning about tolerance and liking it too. The Review of Education/Pedagogy/Cultural Studies, 16(3-4), 349-372.

Zellman, G. L. (1975). Antidemocratic beliefs: A survey and some explana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31(2), 31-53.

<부록> 설문지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석사과정 박세나입니다. 저는 **<고등학생의 정치적 관용과 비판적 사고의 관계 분석>**이라는 주제로 석사학위논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비판적 사고 기능, 비판적 사고 성향, 정치적 관용, 기타 배경 변인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문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50분 내외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개인 신상 정보는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본 설문과 관련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일반사회전공 박세나 드림
E-mail:

Ⅰ. 다음은 여러분의 비판적 사고 기능을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제시된 <니코마 혹성 탐사> 이야기를 잘 읽고, 주어진 문제에 답하세요.

■ 이 문항들은 여러분의 사고 기능을 평가하는 도구이므로, 되도록 차근차근 깊이 생각하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지만 시험 성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 주세요.

■ 확실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답을 고르되, 답을 전혀 모르겠다면 빈 칸으로 남겨두세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20년 5월, 우리나라에서는 새로 발견된 니코마 혹성을 탐사하기 위해 탐사 우주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2년 동안이나 이 탐사 우주선으로부터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탐사 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 번째 탐사 우주선이 니코마 혹성으로 보내졌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탐사 우주선에 여러분이 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1. 첫 번째 탐사 팀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의 탐사 팀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2년 전 니코마로 보내졌던 첫 번째 탐사 팀의 대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탐사 팀은 방금 막 니코마 혹성에 착륙하였고, 첫 번째 탐사 팀의 대원들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이는 금속으로 된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겉보기에 그 오두막은 손상 없이 깨끗했습니다. 니코마 혹성의 날씨는 따뜻했고 태양은 밝게 빛났습니다. 니코마 혹성에 있는 나무, 바위, 풀, 새들은 지구와 비슷했습니다.

가장 먼저 당신과 보건위생담당관이 그 오두막집에 들어갔습니다. 소리 내어 대원들을 불러 보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은 주위를 둘러보며 **"아마도 첫 번째 우주선의 대원들은 모두 죽은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보건위생담당관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지금부터 각 문항에 제시된 문장을 읽고, 해당 문장에 나타난 사실들이 **"첫 번째 우주선에 탔던 대원들이 모두 죽었다."**는 보건위생담당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면** ⓐ, **반박하는 증거라면** ⓑ,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증거라면** ⓒ에 표시하세요.

■ 다음 문제를 풀기 전에 연습문제를 함께 풀어 봅시다.

연습 문제	당신은 제일 먼저 오두막집에 들어갔다. 방안은 온통 먼지투성이였다.	ⓐ	ⓑ	ⓒ

☞ 답은 ⓐ입니다. 이 사실은 첫 번째 우주선에 탔던 대원들이 모두 죽었다는 보건위생담당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그의 주장이 완전히 진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 문장에 제시된 사실은 보건위생담당관의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연습 문제	당신이 속한 팀의 다른 대원들이 첫 번째 탐사 팀의 우주선을 근처에서 발견했다.	ⓐ	ⓑ	ⓒ

☞ 답은 ⓒ입니다. 근처에서 첫 번째 탐사 팀의 우주선을 발견했다는 사실은 보건위생담당관의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유의사항 : 1, 2, 3 … 10번 문제까지 주어진 순서대로 문제를 풀되, 한 번 푼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다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번 문제를 풀 때는 1번 문제에 제시된 사실만을 바탕으로 답을 골라야 하며, 한 번 답을 체크하고 난 후에는 다음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보고 다시 1번 문제의 답을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풀지 않고 넘긴 문제가 있더라도, 다시 돌아가서 풀지 않도록 합니다.

이제 아래에 있는 10개의 문제를 풀어 보세요.				
1	그 곳에는 열 개의 오두막집이 있었다. 당신은 두 번째 오두막집에 들어갔는데, 그곳도 역시 온통 먼지투성이였다.	ⓐ	ⓑ	ⓒ
2	당신은 다시 세 번째 오두막집으로 들어갔다. 그 곳 난로 위에는 먼지가 하나도 없었다.	ⓐ	ⓑ	ⓒ
3	세 번째 오두막집에서 당신은 난로 옆에 놓여있는 병따개를 발견했다.	ⓐ	ⓑ	ⓒ
4	세 번째 오두막집에서 당신은 첫 번째 탐사 팀의 활동을 적은 일일 기록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이철수라는 이름의 대원이 작성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기록된 날짜는 첫 번째 탐사 팀이 니코마 혹성에 도착한지 한 달 후인 2020년 6월 2일이었다.	ⓐ	ⓑ	ⓒ
5	당신은 이철수 대원의 첫 번째 기록을 읽었다. '2020년 5월 2일: 우리는 고된 여정 끝에 마침내 오늘 니코마 혹성에 도착했다. 그리고 착륙 지점 근처에 오두막을 지었다.'	ⓐ	ⓑ	ⓒ
6	열 번째 오두막집에서 당신은 2022년 2월 15일이라고 적혀 있는 쪽지를 발견했다. '누군가 우리를 찾기 위해 여기에 온다면, 우리는 트럭을 타고 탐험에 나섰음을 알려드린다. 우리는 동쪽으로 탐험할 계획이다. *(서명) 대장 최범준*, 니코마 혹성 탐험대장.'	ⓐ	ⓑ	ⓒ
7	그 쪽지 하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P.S. 우리는 일주일 이내에 돌아올 계획이다.'	ⓐ	ⓑ	ⓒ
8	당신과 당신의 동료 탐사대원 7명은 트럭을 타고 동쪽으로 갔다. 거칠고 넓은 계곡을 따라 20km정도 갔을 때, 그곳에서 첫 번째 탐사 팀이 타고 간 트럭을 발견하였다. 그 트럭은 명백하게 버려진 것처럼 보였다.	ⓐ	ⓑ	ⓒ
9	당신은 첫 번째 탐사 팀 트럭의 운전석에서 메시지를 발견했다. '엔진이 고장났다. 우리는 계곡 하류를 따라 걸어갈 생각이다. 아마도 그쪽에서 큰 수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서명) 대장 최범준*, 니코마 혹성 탐험대장.'	ⓐ	ⓑ	ⓒ
10	8명의 대원들 중 정비공을 맡고 있는 대원이 트럭의 엔진 부분을 조사했고, 그는 엔진이 심하게 파손되었다고 보고했다.	ⓐ	ⓑ	ⓒ

2. 니코마 행성 탐사하기

날이 점점 어두워져 야영을 하며 밤을 보낸 후, 다음날 아침 다시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쯤 걷다 보니, 당신과 동료 대원들은 돌로 만든 오두막집들이 있는 한 버려진 마을에 닿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탐사 팀의 팀장이기 때문에 다른 대원들이 당신에게 여러 정보들을 보고할 것입니다. 당신은 대원들의 보고를 듣고 어느 쪽이 더 믿을 만한 정보인지, 혹은 둘 다 비슷하게 믿을 만한 정보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 각 문항마다 믿을만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 다음 문제를 풀기 전에 연습문제를 함께 풀어 봅시다.

연습 문제	ⓐ	정비공이 마을 옆의 시냇물을 조사하고, "이 물은 마시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보고한다.
	ⓑ	보건위생담당관은 "이 물이 마셔도 괜찮은 물인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보고한다.
	ⓒ	ⓐ, ⓑ에서 밑줄 친 정보는 비슷하게 믿을 만하다.

☞ 답은 ⓑ입니다. 마셔도 안전한 물인지에 대해서는 정비공보다 보건위생담당관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유의사항 : 앞선 문제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순서에 따라 각각의 정보들을 판단하되, 한 번 풀거나 넘긴 문제는 다시 풀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하기 바랍니다.

이제 아래에 있는 10개의 문제를 풀어 보세요.		
11	ⓐ	한 군인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했다. 그가 보기에 그 연기는 100m 정도 떨어진 언덕 위에 있는 가장 큰 돌 오두막집의 바로 뒤에서 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 군인은 "연기는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가장 큰 돌 오두막집 뒤에 있었던 다른 군인이 "아니다, 그 연기는 더 멀리서 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 ⓑ에서 밑줄 친 정보는 비슷하게 믿을 만하다.
12	ⓐ	정비공은 돌로 된 오두막집들의 주위를 재빨리 돌아보았고, 가장 가까운 돌 오두막집에서 나는 어떤 소리를 들었다. 그는 "이 돌 오두막집 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	바로 그 오두막집 안에 몇 분 동안 있었던 보건위생담당관이 "그 돌 오두막집 안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했다.
	ⓒ	ⓐ, ⓑ에서 밑줄 친 정보는 비슷하게 믿을 만하다.
13	ⓐ	보건위생담당관은 가장 가까운 돌 오두막집을 조사한 후 "아마도 첫 번째 탐사 팀이 이 돌 오두막집을 지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	인류학자(인류의 문화와 생활을 연구하는 사람) 역시 바로 그 돌 오두막집을 조사하고는 "이 돌 오두막집은 아마도 첫 번째 탐사 팀에 의해 지어진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말했다.
	ⓒ	ⓐ, ⓑ에서 밑줄 친 정보는 비슷하게 믿을 만하다.

당신은 그 연기가 어디서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장 큰 돌 오두막집 뒤에 있는 언덕 위로 탐사 팀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저 멀리 연기 나는 불 주위에 모여 있는 약 40여 개의 사람의 형체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실종된 첫 번째 탐사 팀 대원을 가장 먼저 찾는 사람에게 큰 포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첫 번째 탐사 팀이 정말 그곳에 있다면, 그들을 처음 발견하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 주위에 있는 정체 불명의 사람들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의 탐사 팀에게는 몇 개의 망원경이 있습니다. 날은 아직 환하게 밝아 있고, 팀원들이 가진 망원경은 성능이 매우 뛰어나서 불 아래에 장작으로 사용되고 있는 나무가 몇 개인지를 셀 수 있을 정도입니다.

14	ⓐ	정비공은 망원경을 통해 보고는 "그들의 피부는 검고 털이 북슬북슬하게 나 있다."라고 말했다.
	ⓑ	인류학자는 망원경을 통해 보고는 "그들은 털이 난 게 아니라 동물 가죽을 몸에 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	ⓐ, ⓑ에서 밑줄 친 정보는 비슷하게 믿을 만하다.
15	ⓐ	정비공은 "내 생각에 저기에는 40명이 있다."라고 말했다.
	ⓑ	인류학자는 "아니다, 내 생각에 저기에는 37명이 있다."라고 말했다.
	ⓒ	ⓐ, ⓑ에서 밑줄 친 정보는 비슷하게 믿을 만하다.
16	ⓐ	인류학자는 흥분하면서 "왼쪽에 혼자 서 있는 사람이 최범준 대장이야!"라고 외쳤다.
	ⓑ	그러자 정비공이 "방금 오른쪽에 올라선 사람이 김성재 병장이야."라고 말했다.
	ⓒ	ⓐ, ⓑ에서 밑줄 친 정보는 비슷하게 믿을 만하다.

이후 대원들은 각자 자기가 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오른쪽에 올라선 사람이 김성재 병장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왼쪽에 서 있던 사람이 최범준 대장인지였습니다. 만약 왼쪽에 있는 사람이 실종된 탐사 팀의 최범준 대장이라면 포상은 인류학자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정비공이 포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때, 왼쪽에 서 있던 사람이 무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7	ⓐ	인류학자는 계속해서 "저기 봐라! 저 무리 속에서 우리 쪽을 보고 있는 저 사람이 최범준 대장이다. 내가 아까 최범준 대장이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다. 나는 계속 그의 움직임을 좇고 있었다."고 말했다.
	ⓑ	보건위생담당관은 "지금 우리 쪽을 보고 있는 저 사람은 최범준 대장이 맞다. 그렇지만 아까 왼쪽에 서 있던 사람은 최범준 대장이 아니다. 그 사람은 지금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 저 사람이다. 나 또한 저 사람의 움직임을 좇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	ⓐ, ⓑ에서 밑줄 친 정보는 비슷하게 믿을 만하다.

당신은 정확한 보고를 하기 위해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 대원들에게 물었습니다.

18	ⓐ	현미경으로 많은 수를 세는 것에 익숙했던 보건위생담당관은 망원경을 들여다보며 "정체불명의 사람들은 정확히 39명이다."라고 말했다.
	ⓑ	한 군인도 망원경을 들여다보며 "아니다, 38명이다."라고 말했다.
	ⓒ	ⓐ, ⓑ에서 밑줄 친 정보는 비슷하게 믿을 만하다.
19	ⓐ	정비공이 보건위생담당관에게서 망원경을 받아들고 수를 세기 시작했다. 그는 "맞다, 그들은 39명이다."라고 말했다.
	ⓑ	군인은 반복해서 "아니다, 그들은 38명뿐이다."라고 말했다.
	ⓒ	ⓐ, ⓑ에서 밑줄 친 정보는 비슷하게 믿을 만하다.

불 주위에 있던 정체불명의 사람들은 일어서서 마을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재빨리 대원들을 이끌고 근처 언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언덕 위에서는 들키지 않고 마을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마을이 우호적인 마을인지, 첫 번째 탐사 팀의 대원들이 그곳에 포로로 잡혀 있는지, 그들 중 몇 명의 대원들이 남아 있는지를 알아내고자 합니다.

20	ⓐ	한 군인이 "녹색 모자를 쓴 사람은 지난 1분 동안 다섯 번이나 누군가에게 말을 걸며 한 방향을 가리켰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가 가리킨 방향으로 즉시 달려갔다."라고 말했다.
	ⓑ	이 군인은 이렇게 덧붙였다. "그가 지도자인 모양이다."
	ⓒ	ⓐ, ⓑ에서 밑줄 친 정보 모두 비슷하게 믿을 만하다.

3.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당신은 동료들과 함께 그 정체불명의 마을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적대적인지 아닌지 알아보려 합니다. 만일 그들이 적대적이라면, 그곳에 있는 탐사 대원들을 구출해야 합니다. 당신과 동료들은 탐사 대원들을 구출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하면서,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추론하려 합니다.

■ 각 문제에서 사람들이 말한 것이 진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결과 ⓐ, ⓑ, ⓒ 중에서 틀림없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골라 표시하세요.
■ 지금부터 나오는 문제들은 한 번 풀었던 문제를 되돌아가서 다시 풀어도 됩니다.
■ 다음 문제를 풀기 전에 연습문제를 함께 풀어 봅시다.

연습 문제	정비공이 말했다. "만약 그들이 지구에서 온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우리를 반겨줄 것이다. 그들은 지구에서 온 사람들인 게 틀림없다."	
	ⓐ	그들은 우리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	그들은 지구에서 오지 않았다.
	ⓒ	그들은 우리를 반겨줄 것이다.

☞ 답은 ⓒ입니다. 정비공의 말이 모두 진실이라면, ⓒ 또한 틀림없는 진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래에 있는 10개의 문제를 풀어 보세요.		
21	"만약 그들이 지구에서 왔다면, 다른 우주선이 니코마 혹성에 착륙했을 것이다. 그들은 지구에서 온 것이 틀림없다."	
	ⓐ	다른 우주선이 니코마 혹성에 착륙했다.
	ⓑ	그들은 지구에서 오지 않았다.
	ⓒ	다른 우주선은 니코마 혹성에 착륙하지 않았다.
22	"그들이 지구에서 왔다면, 다른 우주선이 니코마 혹성에 착륙했을 것이다. 그런데 니코마 혹성에는 다른 우주선이 착륙하지 않았다."	
	ⓐ	다른 우주선이 니코마 혹성에 착륙했다.
	ⓑ	그들은 지구에서 오지 않았다.
	ⓒ	그들은 여기에 실수로 왔다.
23	"경비병이 세워져 있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적대적이다. 저 두 여성들은 경비병들이다."	
	ⓐ	그들은 우리에게 적대적이지 않다.
	ⓑ	그들은 우리에게 적대적이다.
	ⓒ	그들이 우리에게 적대적이라면, 경비병이 세워진다.
24	"지구에서 온 어떤 집단이 혹성에 착륙하면, 착륙 소식은 전 세계 신문에 보도된다. 그런데 우리 우주선과 첫 번째 탐사 우주선의 착륙 이외에 니코마 혹성에 대한 착륙 보도는 없었다."	
	ⓐ	신문에서 착륙 소식을 보도한다면, 착륙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다.
	ⓑ	그들은 지구로부터 왔다.
	ⓒ	그들은 지구로부터 오지 않았다.

25	"그들이 외부인에게 적대적이라면, 그들은 외부인들을 굶길 것이다. 우리 탐사대원들은 확실히 굶지 않았다."	
	ⓐ	우리 탐사대원들은 적대적이지 않다.
	ⓑ	그들은 우리 탐사대원들에게 적대적이다.
	ⓒ	그들은 우리 탐사대원들에게 적대적이지 않다.
26	"니코마 혹성에 대한 착륙 보도는 단 두 번, 우리 우주선과 첫 번째 탐사 우주선의 착륙에 대한 것뿐이었다. 지구에서 온 존재가 다른 혹성에 하는 모든 착륙은 신문에 보도된다."	
	ⓐ	그들은 지구로부터 오지 않았다.
	ⓑ	그들은 지구로부터 왔다.
	ⓒ	신문은 결코 실수로 보도하지는 않는다.
27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게 우호적이라면, 상대 집단을 감옥에 가두지 않을 것이다. 오늘 같은 날에는 감옥에 있지 않은 이들은 바깥에서 일을 할 것이다. 우리 탐사대원들은 바깥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다."	
	ⓐ	그들은 우리 탐사대원들에게 우호적이다.
	ⓑ	비우호적인 집단들은 서로를 감옥에 가두려고 한다.
	ⓒ	그들은 우리 탐사대원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28	"저기 봐라! 우리 탐사대원 중 하나가 창문을 기어올라 달아나고 있다. 경비병이 그에게 총을 겨누며 소리를 지르자, 그는 도망가는 것을 멈추고 손을 들었다. 우호적인 집단이라면 그들의 손님이 떠나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	비우호적인 집단은 그들의 손님을 감옥에 가둔다.
	ⓑ	그들은 매우 조심스럽다.
	ⓒ	그들은 비우호적이다.
29	"우리가 우리 탐사대원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 정체불명의 존재들이 평화를 바라는지 알아낼 수 있다. 우리는 경비병이 교대할 때 감옥 뒤쪽에 몰래 숨어서 우리 탐사대원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	
	ⓐ	우리는 그들이 평화를 바라는지 알아낼 수 있다.
	ⓑ	우리는 그들이 평화를 바라는지 알아낼 수 없다.
	ⓒ	경비병의 경계가 너무 삼엄하여, 우리는 감옥 뒤쪽에 몰래 숨어들어갈 수 없다.
30	"우리가 그들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그들 중 일부를 죽일 것이다. 우리가 그들 중 일부를 죽인다면, 우리는 니코마 혹성에 대한 정보의 일부를 잃을 것이다. 우리는 니코마 혹성에 관한 그 어떤 정보도 잃어서는 안 된다."	
	ⓐ	우리는 그들을 공격해야 한다.
	ⓑ	우리는 그들 중 일부를 죽여야 한다.
	ⓒ	우리는 그들을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

4. 일어난 일을 보고하고 무엇을 할지 결정하기

한 시간 가량 마을을 관찰한 뒤, 당신은 대원들을 이끌고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상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권정수 하사관을 시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권 하사관은 당연히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보고서의 내용을 읽고 권 하사관이 당연히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생각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 각 문제에 제시된 문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당연히 사실일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 ⓑ, ⓒ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 표시하세요.
- 지금부터 나오는 문제들 역시 한 번 푼 문제를 다시 풀어도 됩니다.
- 다음 문제를 풀기 전에 연습문제를 함께 풀어 보세요.

연습 문제	"마을 사람들에게 갇혀 있는 탐사대원들은 돌로 만든 오두막의 벽을 부수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다."	
	ⓐ	탐사대원들은 창문을 뛰어넘을 수 있다.
	ⓑ	경비병들이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다.
	ⓒ	벽을 부수지 않고서는 도망갈 수 없다.

☞ 가장 합리적인 답은 ⓒ입니다. ⓒ를 통해 주어진 문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추론 과정에서 비어 있는 논리를 메꿔 줄 수 있습니다. ⓐ와 ⓑ로는 주어진 문장의 논리를 완전히 메꿀 수 없습니다.

이제 아래에 있는 10개의 문제를 풀어 보세요.		
31	"탐사대원들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키지 않고 그들과 이야기할 수 없다."	
	ⓐ	일반적으로, 경비병 몰래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는 없다.
	ⓑ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 이야기하면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32	"우리가 그들에게 합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우리 탐사대원들을 풀어줄 것이다. 결국 그들도 인간이며, 우리 탐사대원들을 풀어주는 것은 인류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인간에게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인류를 돕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이다.
	ⓑ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인류를 돕기 위한 의도를 가진 것이다.
	ⓒ	인간으로 하여금 무언가 행동하도록 만들려면 합리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33	"초록색 모자를 쓴 두 사람 중 키가 더 작은 사람은 여자다. 그 사람이 모자를 벗었을 때 긴 머리를 보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여자라는 것을 안다."	
	ⓐ	모든 여자는 머리가 길다.
	ⓑ	오직 여자만 머리가 길다.
	ⓒ	초록색 모자를 쓴 사람은 여자일 가능성이 높다.
34	"마을 사람들 중 절반가량이 머리가 매우 짧기 때문에, 나는 마을 사람들 중 적어도 반은 남자라고 생각한다."	
	ⓐ	마을 사람들 중 반은 여자이다.
	ⓑ	모든 남자는 머리가 짧다.
	ⓒ	오직 남자만 머리가 짧다.

35	"그들 중 최소 절반 이상이 남자라면, 우리는 전투 상황에서 그들 중 최소 절반 이상과 싸워야 할 것이다."	
	ⓐ	여자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
	ⓑ	남자는 싸움을 한다.
	ⓒ	만약 그들 모두 싸움을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36	"그들에게는 총이 오직 10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중 10명 이상을 한 번에 상대할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	총은 우리를 다치게 할 수 있다.
	ⓑ	칼은 우리를 다치게 할 수 없다.
	ⓒ	오직 총만이 우리를 다치게 할 수 있다.
37	"그들은 딱 10개의 총을 가지고 있다. 경비병 2명이 총을 하나씩 가지고 있고, 나머지 8개는 마을 한 가운데에 쌓여 있어서 이를 알게 되었다. 보이는 것은 그게 전부다."	
	ⓐ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총은 보이는 곳에 있다.
	ⓑ	그들은 총을 동물 가죽 아래에 숨겨서 운반하지 않는다.
	ⓒ	총은 그들의 유일한 무기이다.
38	"그 마을 사람들은 정찰병을 보내지 않았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았는데도 정찰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	정찰병은 누군가를 조사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고용된다.
	ⓑ	정찰병은 그들을 경계하는 사람들에게 발견된다.
	ⓒ	만약 당신이 정찰병을 보게 된다면, 그 정찰병은 부주의했을 것이다.
39	"우리를 감시하는 정찰병이 없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 있는지 모른다."	
	ⓐ	어떤 집단이 자신에게 적대적인 집단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면, 그 집단을 감시하는 정찰병을 보낼 것이다.
	ⓑ	감시하는 정찰병이 있다면, 그 정찰병을 보낸 집단에서는 다른 집단의 존재를 알게 된다.
	ⓒ	한 마을이 정찰병을 보낸다면, 그것은 그 마을 사람들이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음을 의심한다는 의미이다.
40	"마을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니코마 혹성에 착륙했다는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	모든 혹성 착륙 소식은 알려진다.
	ⓑ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든 혹성 착륙 소식은 우리나라에서 온 다른 탐험대원들에게 알려진다.
	ⓒ	우리나라에서 온 탐험대원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탐험대원들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한다.

Ⅱ. 다음은 여러분의 비판적 사고 성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 이 문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문장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답지에 표시하면 됩니다. 가능한 솔직하고 빠른 속도로 대답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생각이나 믿음을 지지하는 사실만을 찾아보고 그렇지 않은 사실들은 찾아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논쟁에서는 내 생각이 정말로 옳은지를 따지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내가 믿어서 이익이 되는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친한 친구의 말은 엄격하게 따져보지 않고도 믿거나 받아들이지만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의 말은 꼼꼼하게 따져 보고 믿거나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내 생각이 틀리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도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나는 논리적으로 말하기 보다는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나는 이것저것 생각해보지 않고 즉흥적으로 결정을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나는 많이 생각하기 전에 곧바로 결정을 내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내 주위의 사람들은 내가 여러 가지 일에 대해 지나치게 성급하게 판단한다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솔직히 말해서 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귀찮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복잡한 글이라도 그 글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나는 복잡한 문제를 보면 겁이 나고 쉽게 포기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4	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그 말의 뜻이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5	남들이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놓은 증거가 믿을만한지를 따져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16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밑에 깔려 있는 기본 생각이나 가정이 무엇인지를 따져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17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 말이 앞뒤가 맞고 논리적인지를 저절로 따져 보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8	어떤 주장을 믿기 전에 그 내용이 정확한지를 따져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19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믿음에 대해 그렇게 믿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0	나는 글을 쓸 때나 말을 할 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①	②	③	④	⑤	⑥
21	나는 사람들이 나와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으며, 그들의 다른 관점을 이해하려고 애쓴다.	①	②	③	④	⑤	⑥
22	다른 사람이 내 주장이 옳지 않다고 하면 화를 내기 보다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23	나는 내 생각을 남들이 이해하기 쉽고 분명하게 설명하려고 애쓴다.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4	일상생활의 많은 문제들이 하나의 해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해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5	내 생각도 틀릴 가능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6	소수의 의견이라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7	나는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옳은지를 혼자서 판단하기가 귀찮다.	①	②	③	④	⑤	⑥
28	어떤 말에 대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나도 따라서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29	나는 내 친구들이 옳다고 믿고 있는 생각이 옳다고 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30	사회적으로 존경받거나 중요한 사람이 하는 말은 그대로 믿는 게 현명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31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을 비판하면 나는 얼른 내 생각을 바꾼다.	①	②	③	④	⑤	⑥
32	나는 어떤 문제가 잘 풀리지 않더라도 문제가 풀릴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33	나는 정답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해답이 있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4	나는 다양한 문제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35	너무 복잡한 일은 여러 개로 잘게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생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36	나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 판단할 때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했는지 점검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37	나는 가끔 나의 생각을 멈추고 내가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38	나는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의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9	나는 어떤 사람의 주장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상황이나 배경을 생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Ⅲ. 다음은 본인과 반대되는 정치 성향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 다음 중 본인의 정치적 성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세요.

◀————————————————▶

① 매우 진보	② 진보	③ 약한 진보	④ 중도	⑤ 약한 보수	⑥ 보수	⑦ 매우 보수

■ 다음 페이지에 제시되는 6개의 문항에 대해서는 자신의 성향에 따라 답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진보적 정치 성향을 가진 경우에는 보수적 정치 성향을 가진 집단을 생각하면서, 반대로 보수적 정치 성향을 가진 경우에는 진보적 정치 성향을 가진 집단을 생각하면서 답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치적으로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표현하는 집단을 생각하면서 답할 수 있습니다.

■ 이 문제 역시 정답이 없습니다. 문장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답지에 표시하면 됩니다. 가능한 솔직하고 빠른 속도로 대답해 주세요.

	나와 반대되는 정치 성향을 가진 집단에 대하여 …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는 것이 금지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동네 혹은 내가 사는 지역에서 공개적으로 연설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동네 혹은 내가 사는 지역에서 공공 집회를 여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정부에서 그들의 핸드폰을 감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Ⅳ.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 다음 항목들은 통계적인 자료 분류 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되지 않으며, 학교 선생님에게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학년은?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3. 귀하의 가정의 대략적인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200만원 미만	②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③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④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⑤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⑥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⑦ 700만원 이상

4. 귀하는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① 전혀 관심이 없다	② 대체로 관심이 없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관심이 있다	⑤ 매우 관심이 있다

5.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표현의 자유는 그 사람이 어떠한 견해를 가졌는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인정되어야 한다.'는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동의한다	⑤ 매우 동의한다

7. '사회는 다수와 극단적으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참아줄 필요가 없다.'는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동의한다	⑤ 매우 동의한다

♥ 모든 설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항상 밝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Abstract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and Level of Political Tolera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Sena Park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eality of our society these days is littered with acts of oppressing the freedom of others because they have different political opinions. Political extremism, which is causing a global crisis of democracy, is problematic in that it causes continuous conflicts among members of society and makes it challenging to come up with constructive alternatives to social problems.

One of the causes of political extremism is political intolerance. Political tolerance means a willingness to support freedom and rights in the public sphere,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even to opponents. The absence of political tolerance triggers and accelerates political extremism.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social studies education to teach citizens to learn political tolerance with the goal of cultivating democratic citizens.

However, the current education on political tolerance in the social studies education is not so effective in preventing extreme confrontation and repressive attitudes between opposing political groups. It is an urgent task for social studies education researchers to improve the current education based on a thorough examination and analysis on education for political tolerance.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 current political tolerance education has not particularly responded well to factors causing intolerance. Based on the theoretical review of political tolerance education, critical thinking, one of the higher-order thinking skills in the social studies department, is expected to develop responses to factors causing intolerance and have a positive effect on political toleranc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and political tolerance of high school students. In order to verify this, hypotheses were set as follows.

■ Hypothesis 1. The higher the critical thinking, the higher the political tolerance towards politically opponent groups.

- Sub-hypothesis 1. The higher the critical thinking skills, the higher the political tolerance towards politically opponent groups.
- Sub-hypothesis 1. The higher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he higher the political tolerance towards politically opponent groups.

■ Hypothesis 2. The effect of the critical thinking skill on the political tolerance towards politically opponent groups is dependent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his study surveyed 351 students of general high schools located in the Seoul Capital Area.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multiple regress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critical thinking skills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ubfactors of the critical thinking,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political tolerance, adopting the <Hypothesis 1>. On the other hand, the <Hypothesis 2> was rejected as the effect of the critical thinking skills on political tolerance was not dependent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From these findings, the following implications are possible. First, in political tolerance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factors causing intolerance through education that cultivates critical thinking skills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cond, it can be effective not only to directly teach the value of political rights and tolerance but also to use neutral factors that are not political in themselves, such as critical thinking skills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keywords : Political Tolerance, Tolerance, Political Education,

Critical Thinking, Critical Thinking Skill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tudent Number : 2020-21944